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참 진리 되시며 생명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10월 5일 (토) 제 1987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왜 나 같은 Z세대 남성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까? 진정한 남성다움을 그리스도로부터 찾았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특별히 남성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남성이 좋아한다고 여겨지는 차 엔진을 고치거나 폭발물을 터트리거나 진흙탕에서 별이는 레슬링, 근력 운동 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니다. 고등학교 때 풋볼은 했지만, 키가 6피트 4인치 안 되는 185파운드에 공격 라인맨으로서 제가 가진 "남성성"은 경기가 시작되자 모두 걷어차였습니다. 액션 영화는 지루하고, 페인트볼은 하고 싶지 않고, 게이머이기는 하지만 "포트나이트" 같은 액션 게임보다는 "보글" 같은 워드 퍼즐 게임을 더 즐깁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세대를 "소프트"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아마도 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자답게 "존 웨인"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에게 변화를 준 것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청바지를 사거나 Andrew Tate의 발치에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속으로의 휴양, 농장에서의 일과, 도구 상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니다. 고정 관념적인 남성적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뉴욕 타임스는 제 세대의 종교적 소속에서 충격적인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 루스 그레이엄은 텍사스 와코에 있는 그레이시 교회를 방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남성들이 환영문을 지키고, 좌석을 채우고,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는 텍사스보다 더 큼니다.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에 따르면, 현재 Z세대 여성의 약 40%가 자신을 종교적으로 무소속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은 34%에 불과합니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은 무종교일 가능성이 더 컵니다. 그렇다면 Z세대 여성이 교회를 떠난다면, 저와 같은 Z세대 남성은 왜 교회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남성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비전

Z세대 남성들은 남성성이라는 개념이 강렬한 비판을 받았던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MeToo와 같은 운동과 광범위한 학대 폭로 이후, 우리 문화는 종종 남성성과 관련된 독성 행동에 대해 단언히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는 남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비전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극단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성성을 지배력, 자아, 자기중심성과 동일시하는 독선적인 남성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리더십을 주저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며, 남성이 되는 것에 대해 독학하거나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부드럽고 목적 없는 남성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 중 어느 것도 Z세대 남성이 삶을 쌓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끝없는 토론과 소셜 미디어 전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우리를 뒤처지게 한 것 같습니다.

(3면으로 계속)



소설은 읽을 시간이 없다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의 능력이 충만하길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곳곳에서 들리는 반가운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 모여 독서모임을 만들고 책을 읽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이다. 총체적 선교, 통합과 투쟁의 한국 교회의 풍경, 그 거창한 큰 흐름 속 미세한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진리에 목말라 평균 두 세 개의 독서모임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청년들과 학자들을 만난다. 오늘날 책에 대한 기독교 문화의 주류는 사상이다. 사상이란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또는 '판단과 추리를 거친 의식적 내용 또는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통일된 판단 체계'를 말한다. 나는 기독교가 믿는 사상, 즉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관점을 설명하는 책 아닌 다른 장르

의 책을 읽는 모임을 거의 만날 수 없었다. 시를 만들고 읽는 기독교 모임은 간혹 있지만, 특히 소설을 읽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마치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해 닭가슴살만 먹는 다이어터처럼, 가던 길로만 다니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사람처럼, 또는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묵상하며 새로운 삶으로의 확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우연히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마주하고 응시한 멋진 그림 한 점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주의를 정성처럼 여겼는지' 깨닫게 해 주듯이, 좋은 소설 한 편은 기존의 나를 넘어서는 인간의 경험을 보게 한다.

(10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푸른초장 김경열 목사 4면



교회선교의 선순환 조용중 선교사 13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물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시론

갈등과 분쟁의 땅,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한 주간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복잡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의해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하마스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헤즈볼라 세력들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반군들, 이들 모두에게 다양한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는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단원들이 사용하던 수천 개의 pager(빠빠)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전기까지도 폭발시킴으로써 지도부 사이의 통신마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후에 전투기를 이용하여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역에 숨겨두었던 미사일이나 폭발물 저장고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수천 번에 걸쳐 타격했습니다. 마침내 헤즈볼라 무장 그룹의 최고위 통치자까지 미사일로 타격하여 사살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주변국가도 아닌 무려 1,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증오하는지, 그리고 이런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인 분석들을 듣고 보면서 상당한 부분 설득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인가 큰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사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해결의 근원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과의 갈등의 이유와 나아갈 길을 찾아 봅니다.

첫째,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작금의 문제의 출발점으로 20세기 초, 이스라엘 국가의 출현으로 봅니다. 25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부터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몰려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국가를 그곳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역사와 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의 의지와 방향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이 사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풀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사태를 바르게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둘째, 이 갈등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믿음과 신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하여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국가체제를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국가에 이식하려고 시도하는 과정 중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등은 모두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대체 세력들로서 이들을 통해 서구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종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그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혁명수출'을 이룩해 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땅의 소유에 대한 문제부터 새롭게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가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현실 삶에서 바르게 적용할 때 비로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보기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샬롬.

hankschoi@gmail.com

유독 그리스도인이 찬송을 멈추지 못하는 까닭은

복음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기쁨에 뛰어들게 만든다

매주 금요일이면 나는 내가 사는 아랍에미리트 언덕 아래 모스크를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기도를 낭송하고, 의식을 거행하고, 쿠란 메시지를 듣는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들은 노래하지 않는다.

모스크에는 회중 찬양이 없다. 그들의 예배에는 노래가 포함되지 않는다. 회중 찬송가도, 악기도 없다. 동양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가끔 축제 찬송을 부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종교 활동에서 회중 노래는 없다. W. M. 클로우가 말했듯이, "불교 사원에서는 결코 찬양의 함성이 울려나오지 않는다. 무슬림 신도들은 결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 거기에 는 결코 용서받은 자가 부르는 환희의 노래가 없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찬양을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하 묘지, 성당,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곳에서 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느 지하 교회는 벽과 창문을 방음하고, 때로는 매트리스까지 깔아서 발각되지 않고 찬양 목소리를 높이도록 조치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무리가 잠잠하면 돌까지도 소리칠 것이니라"(눅 19:40).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찬양을 막을 수 없는 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 이후에 그의 백성은 흥해 옆에서 노래하며 기뻐했다(출 15:1-2). 여러 세기가 지나고 이사야는 새로운 출애굽, 즉 언젠가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전 세계적인 구원을 기대했다. 그가 기다렸던 약속된 구원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되었다(요 1:29).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불려야 할 새로운 노래가 있다(사 42:10).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가슴으로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응답한다(엡 5:19).

수많은 종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뭔가 하는(Do) 종교와 이미 성취된(Done) 종교이다. 전자는 축제와 제사, 의식을 규정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수용을 얻으려고 하거나 거기에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용이라는 목적이 "한 번에"(히 7:27; 9:12; 10:10) 완성된다.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다.

이슬람에는 오대 기둥이 있고, 불교에는 팔정도다 있다. 시크교는 자기 구원의 패턴을 규정하고, 뉴에이지는 영적 기술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는 없다"(9:9).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무서운 의무와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대"(10:27)만 있을 뿐이다. 그들의 예배에서 환희에 가득한 찬양을 찾아볼 수 없는 건 당연하다.

2. 형제자매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주일 아침 찬양하는 우리는 단지 청중이 아니다. 청중은 하나님이다. 찬양하는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가르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엡 5:19)을 포함한다. 회중 찬양은 수직적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이기도 하다.

교회는 앞에서 인도하는 공연자들

지켜보는 수동적인 오락이 아니다. 교회는 적극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18세기 찬송가를 부르던 현대 찬양을 부르던, 우리는 성경이 드러내는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한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신앙고백이나 교회의 신앙 선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찬양에서 성경 진리를 확인한다. 모든 신자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롬 8:9).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제공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장소이다. 조나단 리먼은 이것을 "반향"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렇게 썼다. "찬양은 온 사람, 즉 마음, 정신, 애정, 의지를 사로잡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찬양은 "교회 문 밖으로 울려 퍼져야" 하고 이웃과 가정으로까지 퍼져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찬양 선택은 중요한 목회적 책임의 하나이다. 찬양은 가르침을 포함한다. 찬양할 때 교회는 단순한 감성주의가 아닌 신학적 무게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목소리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고양시킨다.

(12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역자 청빙광고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계선교에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풀타임 사역자(남,여목사 또는 남,여전도사)를 청빙합니다.
담당사역: 장년부, 청년부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가족 소개 포함) 3) 추천서 2개 4) 설교영상 2 편(유튜브 링크) 5)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
서류제출처: inhistime5367@gmail.com
서류 마감일: 10월 13일까지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주평안교회는 남가주 엘에이 코리아 타운에 있으며 내년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본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초교파 개혁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복음적인 신앙노선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청빙요건: 1. 복음주의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분 2. 이민교회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담임목회 혹은 부목사) 3. 합법적인 미국 거주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과 가족사진 포함) 2. 신앙고백서(목회자로서의 소명, 목회 철학과 비전 포함) 3.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졸업 증명서 4. 최근 설교2-3 편 (동영상 링크 또는 파일) 5. 추천서 2 부 이상 (추천서는 추천자가 직접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서류 보내실곳: mijoopeacechurch@gmail.com
서류접수기한: 2024.11.10 까지

왜 나 같은 Z세대 남성들이...

(1면에서 계속)

교회를 제외하고요

교회에서 Z세대 남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가르친 문화 속에서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요15:13). 교회에서 Z세대 남성들은 여전히 방종을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규율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딤후 1:7). 교회에서 Z세대 남성들은 여전히 스스로 행동하도록 가르친 문화권에서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잠 27:17). 교회에서 Z세대 남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렘 2:10). 교회에서 Z세대 남성들은 결혼은 기다려도 된다는 가르침을 받은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렘 5:25). 교회에서 Z세대 남성들은 여전히 성적 자유를 통한 충족을 약속하는 문화 속에서 순결함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고전 6:18). 교회에서 Z세대 남성들은 여전히 "조용히 그만두라"(골 3:23)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Z세대 남성들이 여전히 독선적이라는 것을 배운 문화권에서 아들이라고 불립니다(요일 3:1).

십자가형 남성성

교회에서 저와 같은 Z세대 남성들은 문화가 제공하는 거짓된 남성성을 거부하고 대안인 십자가형 남성성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독성 남성성의 자아, 지배력, 자기 중심성을 겸손, 희생, 사랑의 신성한 표현으로 전복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또한 책임과 목적을 회피하는 부드럽고 목적 없는 남성성 버전에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진정한 남성성은 책임을 받아들이고, 힘을 기르고, 사명에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Z세대 남성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더 높은 무언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삶을 바칠 만한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고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 자신의 삶, 가족, 지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방어할 힘을 부여받은 독특하고 하나님 주신 책임에 기대는 것입니다. 제 교회는 진정한 남성성의 이러한 측면이 모델이 되고 기념되는 곳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사용하여 고등학생 소그룹을 이끌고 그들이 신앙과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울 때 남성적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주일 학교 어린이 사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 다음 세대의 영적 아버지 역할로서의 남성다움을 느낍니다. 저는 매 주일 예배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구축할 때 남성적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친구들과 만나 성경 공부 하러 서로에게 도전하고 영적 형제애를 키울 때 남성적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제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제 노력이 저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 한다는 것을 알 때 남성적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예 중 많은 것이 여성에게도 똑같이 쉽게 사

갈구합니다. 그리고 혼란의 문화 속에서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 형성된 남성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저 같은 Z세대 남성들은 우리에게 신이 주신 힘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의 책임에는 보상이 있으며, 우리의 용기에는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런 종류의 남성성은 성령의 열매, 즉 인내심, 충실함,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아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당신보다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런 남성들을 형성해 왔고, Z세대 남성들이 봉사를 통한 힘이라는 비전에 이끌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Z세대가 갈구하는 남성다움

문화가 남성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을 계속 던지는 동안, 교회는 꾸준히 의미 있는 모델을 제공해 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사랑으로 이끌고, 진정한 힘은 가슴을 부



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연민으로 이끌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신앙에 뿌리를 둔 관계를 구축할 때 여성스럽다고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구원 받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Z세대 남성들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가 남성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 특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별 중립적이고 성별 유동적인 세상은 남성과 여성을 인간성의 뚜렷한 표현으로 창조하신 신의 창조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성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Z세대 남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에 목적이 있고, 책임에 보상이 있으며, 용기에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에서 겸손한 아들, 헌신적인 형제, 현명한 아버지가 되라는 부름을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두는 것임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Z세대 남성이 갈구하는 남성다움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제 격려는 간단합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의미를 간절히 찾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 전하세요. 남성들에게 더 높은 기준, 정직한 삶, 왕관보다는 십자가에 더 가까운 리더십을 계속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그저 더 나은 남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업적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남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Z세대 남성은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찾았던 단 하나, 참 진리 되신 분의 모습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by Luke Simon, TGC

목회단상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

폴린 스미스(Colin Smith) 목사의 책, Unlocking the Bible Story에 보면 '죄의 다스림'에 대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가 했던 비유를 제가 약간 각색해 보았습니다.

어느 친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하와이로 휴가를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0명이 탈 수 있는 아주 큰 비행기에 친구들이 모두 탑승합니다. 비행기 표는 각자 생활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끊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을 구입하여 탔지만 어떤 분들은 편하게 가고 싶어서 돈을 많이 지불하고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을 탔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코노미의 몇 배의 값을 지불하고 가장 좋은 자리인 퍼스트 클래스에서 호강스럽게 앉아 갑니다. 여행은 순조로운 이륙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모두 하와이에서 좋은 여행이 될 것을 꿈꾸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경보가 울리며 기내가 연기로 꽂 차더니,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기관단총을 든 세 사람으로 인하여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완전히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비행기는 하이재킹 되었고, 모두 인질(hostage)이 된 것입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타고 갈 때까지는 이코노미, 비즈니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의 대접이 분명 달랐습니다. 돈에 따라 대우가 달랐습니다. 좌석 크기도 달랐고 음식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돈을 많이 지불한 만큼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코노미에 탄 사람에게만 식사도 안주지만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에 탄 사람들은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기에 각각 돈을 가진 만큼 혜택을 누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재커가 총으로 비행기를 완전히 통제한 후부터는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라고 형편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납치범들의 무서운 통제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두 겁에 질리고 이제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행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911 테러 때에 두 대의 비행기가 하이재킹 당하여 뉴욕 쌍둥이 두 빌딩으로 각각 날아가 고의로 부딪히므로 그 납치범들에 의해 사람들이 100% 죽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행기 안에서 하이재커에게 파일럿이 통제되었고 나머지들도 그들의 총구 앞에 불뿔었다면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인질범에 의해 통제된 무서운 세력이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에게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롬 5:17). 죄로 인해 사망의 세력의 통제 안에 있을 때, 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유명하지에 대해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롬 3:9) 죄가 죽음 가운데서 다스렸다는 말은 인류를 다스리는 죄악의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이고, 성경은 그 끝이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

한일철 목사 (그리스도교인성교회 담임/NC)



(eternal punishment/eternal hell)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죽음이 누구에게나 임하여 지옥에 간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앉아 있는 곳이 퍼스트 클래스든, 비즈니스 클래스든, 이코노미 클래스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 중에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이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죄의 권세와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 400명이 비행기에 탄 것으로 비유했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이재커가 있는 비행기에 탄 것과 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전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현재 가고 있는 것과 같으며 모든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인질범에 의해 하이재킹을 당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어 사망에 이르게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명예나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지구는 중력의 법칙 아래 모든 자들이 영향을 받는 불변의 법칙이 있으나 양력의 법칙은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비행기가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로 죽음을 범칙이 있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우리로 죄의 권세 아래에서 당하는 죽음의 범칙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우리로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줍니다. 우리 죄를 위해 구속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하이재커들이 있는 비행기를 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진실을 말해 줍시다. 곧 죽음을 앞둔 비행기 안에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hanusa1962@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안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형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bfccusa@yahoo.com / www.lbfcc.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청년 1부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잠스/KDC, 킹덤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310)719-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동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cl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일일예배: 오전 11:15 수요일: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p> <p>Tel: (949)854-4010 / behel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세계선교교회</h4> <p>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h4>실비치 사랑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사역원</h4> <p>원장: 박윤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W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626)294-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7:30(월-토)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2, www.graeci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W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평강교회</h4> <p>담임목사: 송금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교과: 오후 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TEE-동요문예(유일): 오전 9:30 월요 3.3.3기도회: 영동예배 오전 10: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령을 향하는(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s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스승님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태어나 유아원에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을 때 만나는 교사, 스승의 숫자가 얼마일까? 공교육 AI에게 물어봤더니 대략 100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한다. 오늘의

나는 이런 수많은 스승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을 것을 알며 계속 그분들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아왔을 것을 생각하니 새삼 감사하고 존경하게 된다. 오늘따라 그 많은 스

승 가운데 두 분 생각이 간절하게 되어 강렬하게 일어난다. 중학교 첫 담임이었던 이성엽 선생님과 신학을 가르쳐 주신 박윤선 목사님 생각이 간절하다. 오늘은 이성엽 선생님 이야기만 나누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는 바람에 전학 수속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인이 소개해준 중학교를 찾아 나섰다. 정문의 수위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교무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다가 악취가 진동하는 남학생들 화장실에서 맨손으로 누런 이끼를 제거하고 있는 수위 아저씨를 만났다. 그의 안내를 받아서 교무실로 갔고, 수속을 마친 후에 학급을 배정받았고 오후 수업까지 마쳤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을 처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떤 분이 나의 새로운 담임일까? 궁금하게 기다렸는데 눈앞에

나타난 담임선생님은 오전에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던 수위 아저씨가 나타났다.

난 순간적으로 신선한 충격에 정신이 하얗게 멎춰 버리고 말았다. 군복을 염색한 후줄근한 작업복 차림과 꼭 눌러쓴 운동모자와 낡은 군화를 신고 나타난 그분은 여전히 내 눈에 수위 아저씨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다음 월요일 애국 조희시간에 두발 검사가 있으니 반드시 머리를 다 깎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4.19혁명 이후에 중고생들에게 3cm까지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도록 자유화를 했었다. 그러나 짓궂은 학생들은 3센티로 만족하지 않았다. 많은 학생은 장발족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군사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온 나라 질서와 기강을 군대식으로 바로잡기 시작하면서 다시 삭발

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애국 조희시간이 왔다. 호랑이 선생님이 통하던 훈육 주임이 교단에 서서 이제부터 두 발 검사를 실시한다! 외치는 그 즉시로 각반 담임 교사들의 손에는 이발기가 들려졌다. 그리고 앞줄의 학생들 정수리를 밀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순간적으로 전교생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이리저리 도망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임시 조희로 전교생이 다시 운동장에 모였다. 이번엔 훈육 주임이 아닌 우리 반 이성엽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섰다. 그리고 꼭 눌러쓰고 있던 당신의 운동모자를 전교생 앞에서 벗었다. 그 순간 전교생들은 어느 누구 하나 움찔할 수 없는 부동자세로 얼어붙었다. 선생님은 친히 당신의 머리카락을 완전히 삭발한 모습으로 서 계셨다. 그리고 각반 담임선생님들은 기기를 가지고 학생들의 정수리 머리

카락을 밀기 시작했다. 임으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가르치신 존경스러운 스승을 그날 처음 모시게 되었고... 일생 그분은 나의 진정한 스승이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분에게 접근해 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평생 스승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다. 한 시간 이상을 걸어서 버스를 타지 않고 출퇴근을 하셨고, 한 번도 신사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선생님의 전공과목은 생물학이었지만 진짜 전공은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후에는 모 대학의 교수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셨다는 후문을 들어봤지만 여태 생존해 계시는지도 궁금하다. 다음 기회에는 친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오늘따라 강하게 일어난다.

jkym47@gmail.com

푸/른/초/장

김경열 목사
(뉴욕영안교회 담임)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많이 둡니다. 약속은 인격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가 존재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용 좋은 사람이고, 사회나 국가의 신용등급도 바로 약속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적 신뢰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후진국과 선진국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을 전 세계가 염려하는 것은,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말 1:10) 이렇게 백성들이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을 받아 식민지가 되게 하였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과 병충해 등 흉악한 재난들이 일어나 찢어

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던 초창기였습니다. 아는 권사님이 개척교회서 헌금설교나 심일조를 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으니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언인 줄 알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심일조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만 받으라"고 몇 달을 설교를 했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에게 큰 복을 주겠습니까? 도둑놈을 어떻게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기도를 하는데 도둑이 헌금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날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가 눈을 뜨고 있다가 도망가는 도둑을 보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도둑은 잡혔습니다. 장로님들이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놓아주시라고 했답니다. 어찌 그 사람만 도둑이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면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심일조를 잘 드리는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심일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후손이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심일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온전한'이란 말은 모든 것 또는 흠이 없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을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일조는 구제를 하거

나. 심일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약속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시는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오직 이곳에 한번 나옵니다.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메뚜기를 급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11절)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근동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거의 곡식이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황충은 도적이요, 강도요, 질병이요, 재앙이요,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해마다 농촌에는 AI 조류 전염병으로 오리 닭이 수백만 마리씩 살 처분을 당해 땅에 쓸어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해서 3년간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면 황충의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11절). 수고했으나 열매 수확하기도 전에, 기한 전에 태풍이나 병충해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말라기 3:7-12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삼고 그 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은 곧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마음껏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믿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해방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제사장들까지도 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베틀 끈, 누운 끈, 다시 비틀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제물이라고 드릴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시장에서 팔아 보라, 사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기뻐하겠는가? (말 1:10) 그런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느냐, 진노하시면서 '누군가

진 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게을리했고, 심일조 드리는 것도 형식이 빠졌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방탕에 빠져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통의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일조'라고 했습니다. 심일조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심일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황충(메뚜기)을 급하고, 포도밭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물질의 어려움은 없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가장 기초가 바로 온전한 '심일조'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한

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말라기를 강해하는데 성경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나 모으려는 삿 군 목자가 되려느냐? 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의 축복 문을 가로막느냐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 새벽에 집엘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날 주일 예배 때, 새벽에 성령이 주신 깨달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오직 성경대로만 전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으면 응고 가 돼서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천국까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일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심일조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심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곧 심일조와 봉헌물이라.(말 3:8) 심일조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이 사람들로부터

날에 온 성도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형식상 적당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일조를 '떼어먹었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사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란 소유권자가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에 정직해 아 다른 것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나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흠이 없이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7:30에도 '심일조는 여호와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일조를 '떼어먹었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사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란 소유권자가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에 정직해 아 다른 것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신앙으로 살기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청교도들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고, 굶어 죽어 가는데도 종자 씨를 먹이지는 않았습니까. 낱고기를 잡아먹으면서도 종자 씨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종자 씨는 대륙에 가서, 씨를 뿌려야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일조는 종자 씨와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소중히 구별하고 지켜야 내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주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고서 심일조를 못 드르신 분들은 심일조를 온전하게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께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제물로 그 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심일조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wom10004@naver.com

교회의 본질, 예배

교회의 본질, 생명력은 예배에 있다. 예배가 침체되는 순간 교회는 침체되고 나라와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고, 예배가 바로 드러지는 곳에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본질이라면 예배이다. 예배를 빼놓고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살아있는 예배가 없이 전도가 있을 수 없고, 선교가 있을 수 없다. 특히 교회의 부흥은 물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논할 수 없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것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다. 그런데 예배 외에는 이것이 가능한 길이 없다. 예배에 그 내용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 자체는 만남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과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신앙행위 가운데 '찬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 단 순히 하던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음악 혹은 찬양이라고 할 수 없다. 곡조에 맞추어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화로서의 말을 계속하는 그런 교제와 교통의 상태가 찬양이다. 단순한 반복의 지

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죄 많은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되고 바른 예배이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회복을 맛보게 된다.

신앙생활의 종합적인 틀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

의 사유함을 덧입는 인생의 참된 복을 맛보지 못한 탓이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가 되고, 자기를 나누어 주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교만과 원망이 가득한 죄인의 자리에서 회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치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지 않은 채 열심히 외관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는 그러다가 고장 나면 다시 손질해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 들어가면 그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본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한번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레코 로마 시대라고 말하는데 무슨 뜻이지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도 했지만 기독교 선교에 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데 알고 싶습니다.
- 로마타에서 권명옥 권사

그레코 로마 시대의 선교

A: 좋은 질문입니다. 그레코 로마(Greco-Roman)시대는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레코(Greco)는 Greece(그리스)를 로마(Roman)는 Roma(로마)를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그리스의 고유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와 융합하여 형성된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 정신 예술등을 헬레니즘(Hellenism)이라 부르며 서양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마 시대는 그리스와 로마의 혼합 양식을 띠는 시대를 말하는데 특히 미술과 예술에 있어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BC140-AD 300년을 말합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세배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고 순교도 했는데 이것은 원래 로마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인간을 신처럼 숭배한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레코 로마 시대에 바울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혜택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신 김인수 목사의 매일의 묵상에서 중요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첫째는 로마제국의 광활한 영토입니다. 북한은 다른 장소로 가려면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로마 시민뿐 아니라 로마 속국의 시민도 로마의 영토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여권과 비자도 필요없이 마음껏 전도하려고 다니는데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의 장애를 받지 않은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고 여행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교통의 편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넓고 긴 도로가 필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부족을 점령했는데 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진압하기 위해 군인을 실은 마차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 하기에 잘 닦여진 도로를 수없이 건설했고 이를 위해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바울과 전도자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언어의 통일입니다. 로마시대 서부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했고 동부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 이 두 언어만 사용하면 언어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제국의 언어 통일은 전도자들이 복음 선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치안유지입니다. 군국주의하에서 로마 군인들이 배치되어 민간인을 괴롭히는 무리를 철저히 응징했기에 치안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의 활동이 복음전파에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교차합니다.

다섯째, 유대인의 분산과 회당입니다. 주후 70년경에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주후 132년 로마 황제 아드리아안은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쫓고 전 세계로 흩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이면 힘을 키워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기에 바울과 전도자들은 회당을 찾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예배는 회복과 축복입니다

-회복의 만남, 회복의 도구, 회복의 축복-

은 결국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태어났다. 교회가 태어났다 함은 결국 유기체(organism)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조직체(organization)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기체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 자체 안에서 생명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며, 그 속에서 생동력을 가지게 되므로, 교회는 참된 생명의 유기체로 거듭날 수 있다.

절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입에서 계속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라는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선물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곧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이처럼, 오직 예배 안에서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를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느끼고 드릴 수 있는가? 사람 속에서 타락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길을 넘어서려는 것, 죄의 시작이 된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길을 정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려 한다. 과녁을 빗나가는 죄가 드러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예배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듯이, 이방 사람들이 온갖 다양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듯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한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한다. 느끼는 것은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가능한 언설이다. 계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

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틀을 주시고, 이 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성공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성도의 온전한 삶은, 신앙의 종합적인 틀인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 고갈의 문제들, 그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의 문제도 예배 속에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면 능히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은 오직 육체적 필요만을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세상 쪽으로 쫓겨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참된 회복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려는 목회(牧會)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된 회복이다. 목회가 다수를 구원하여 많은 열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예로서, 기도에 열심을 내어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간이 흘러 오지부동하고 태도에 교만이 넘쳐 마음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거슬러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을 보게 된다.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앞에 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가 예배이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인생의 죄악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예배를 통해서만 인생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에 이르는 것이다.

좋은 예배자, 좋은 예배

예배의 회복은 예배순서를 달리하거나, 예배의 어떤 방법이나 도구를 달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배 회복의 중심에는 좋은 예배자가 있다. 즉,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좋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요 4:23). 좋은 예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할 것인지에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육신 된 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그래서 예배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자의 회복을 강력하게 강조한다. 예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목회는 예배자의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취하듯이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의 신병이 복종하는 훈련을 잘 마쳤을 때, 그에게 총과 무기들 심지어 탱크까지 제공되는 것처럼, 잘 훈련된 예배자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도 좋은 예배자가 세운

성경은 회복의 책

예배와 교회 회복의 사역들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회복'이다. 회복의 의미는 '치유 혹은 구원'이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다. 회복은 사망에 이른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곧 회복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회복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분이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다. 회복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남이다. 만남은 관계, 교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배 외에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증거한다. 다른 길들은 모두 막아 놓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오직 예배뿐이다.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순교자들의 정신 위에 교회는 세워져 왔다. 시대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은 방법으로 세기 수 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좋은 예배를 찾으셨다. 어떤 급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배를 찾는 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과 성령님께서도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그

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성도와 목회자들은 좋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성령의 신령한 감동이 살아 있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이렇게 감사 할 생일!

주일과 생일이 정확히 겹치는 올 해 생일이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감사하며 날짜에 맞는 주일에 제단헌화를 미리 사인하여 봉헌하지만, 이렇게 주일과 기념일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드문 일이다. 우리교회 90세에서 100세 이상 그룹의 여성교회 회원들은 매년 생일마다 우리 나이는 항상 '29세에서 33세사이 일 뿐이다.' 라는 농담과 허그로 생일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다. 노란소곡이 함박 핀 꽃다발을 안겨주며 생일을 축하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교우들의 많은 축복과 축하로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크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내 생일은 항상 두 가지 큰 행사와 날짜가 함께였다. 음력으로 고유명절 추석(한가위)과 부모님 목회의 가을 심방사역 기간이

었다. 심방 중에도 엄마는 친구들과 방과 후 생일 축하파티를 할 수 있도록 통닭, 케이크, 과자, 김밥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한 맛있는 생일상에 선물과 카드를 잊지 않고 올려놓으시고 식탁보로 얹전히 덮어놓으셨다. 추석과 생일 날짜가 겹칠 때면 더 풍성한 생일상과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친정아버지는 정임이는 추석빔과 생일선물을 꼭 따로 해 주라고 하시며 생일이 주석으로 두 배 신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특별한 선물과 음식이 아니어도 청명한 하늘과 색깔을 바꾸어가는 나뭇잎 특유의 약간 쓴 내음이 배인 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했다.

작년 봄에 이직한 데이케어 센터는 교사들의 생일에 함께 축하를 하고 원장님이 준비해 주시는 맛있는 점심을 나누는 즐거운 문화가 있었다. 이번 나의 생일 전주부터, 다정다감 생일 점수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얘기해 달라고 하시며 미리 오랫동안 끓여 진국이 된

소고기미역국과 따뜻한 전들과 나물, 잡채와 해파리 새우 냉채로 결혼 후 누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미역국이 올라온 생일상을 차려준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몽클라도록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점심과 동료교사들의 선물, 귀여운 축하카드를 받았다.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 만난 이들에게 이런 귀한 대접과 사랑을 받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이었다.

새벽부터 카톡! 카톡! 울리는 시차를 생각하지 못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도 잠을 설치게 하는 어려움보다 각자의 일상과 특별히 추석 연휴로 바쁜 중에 잊지 않고 시간을 만들어 보내온 그 마음이 고맙고 또 고맙았다.

지역에 유명한 베이커리에 필리핀에서부터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청년이 일하는 일요일이어서 교회에 가지 못해 축하하지 못했다고 하며, 라이드를 해주어 늘 고맙다는 감사 글을 필리핀어와 영

어가 섞인 생일축하 카드로 보냈다. 아들 병일 때문에 주말에 보스턴에 다녀오느라 늦게 사모님 생일을 축하드린다며 장난스럽게 "거의 50되심을 축하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이제 믿음직한 두 아들의 아빠가 되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여전히 처음 만난 대학생 막내 동생 같은 형제의 문자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이 때문에 걱정 많고 힘들었을 주말, 늦은 저녁 잊지 않고 내 생일까지 축하하는 그 진심과 유머에 "짜모님, 아직 두발 남았다!"는 위트있는 답장으로 함께 웃으며 새 병원의 모든 절차와 진행이 잘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대화로 여유를 가졌다.

올해 대학에 들어가 처음 떨어져 엄마 생일을 보낸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아이패드에서 한글로 한자 한자 굵게 쓴 딸의 생일편지는 놀람과 감동이 있었다. 편지 내용에 담은 사랑과 추억의 내용들이 나를 울고 웃게 했다. 그리고 긴 문장에 한글 맞춤법을 틀리지 않게 쓰려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껴져 기특했다. 집을 떠난 지 한 달 여백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더 성장한 것 같아 대견한 마음도 들었다.

엄마 생일이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케이크를 고르는 귀여운 막내아들이 옆에 있고, 20년이 되도록 취향을 맞추지 못하는 남자가 보기에만 예쁜 생일카드에 축하와 사랑을 전하는 믿음직한 남편이 있다. 켄터키 예스베리신학교 유학시절에 만난 나의 펄킨스파이스 라떼 친구 사모님이 생일에 꼭 마시라고 하며 스타벅스 카드를 선물로 보내주셨다. 함께 못 마신 지 15년이 지났는데 그 시절 그 사랑과 추억을 함께하는 친구의 마음에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달콤하고 따뜻하다.

나이가 들어가며 크게 특별하지 않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 되어가는 때의 생일이 올해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모든 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히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음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음란물 접하는 미 인구 늘고 있다... 기독교인 58% "교회에 다뤄주길"

음란물(포르노)을 접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6%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한편 목회자와 교회가 음란물이 사람의 감정과 관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음란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 및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은 퓨어리자이머니스트리와 지난 24일 '포르노 현상 너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국 성인 2976명과 기독교 청년 지도자 205명 개신교 목회자 462명 등 미 기독교인 667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미국 성인 61%가 음란물을 본다고 보고했다. 2015년 조사해 2016년 4월 발간된 동일 조사 결과(55%)에 비해 약 6%p 오른 수치다. 눈여겨볼 점은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시청한다'고 응답한 기독교인과 '정기적인 음란물 시청이 건강한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54%)이 음란물을 본다고 답변했다. 또 기독교인 62%는 '정기적인 음란물 시청이 건강한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체 미국 성인의 조사 결과(66%)와 4%p 차이로 유사한 결과다.

미 목회자 중 '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도 2015년(57%)과 비교해 67%로 10%p 증가했다. 목회자 5명 중 1명(18%)은 현재 '현재 음란물 시청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음란물 시청은 배우자와의 친밀감, 신뢰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중 44%는 '배우자가 음란물을 시청하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불안감을 표출했다. 퓨어리자이머니스트리 관계자는 "포르노를 정기적으로 보는 이일수록 배우자 등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은 물론, 정신적 및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포르노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욱 자주 불안해하고 자기비판적이며 쉽게 압도된 기분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교회가 음란물 관련 교육 및 상담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기독교인 중 58%는 '교회에 음란물 시청 등에 대해 다루주길 바란다'며 '음란물 중독 관련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48%)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건전한 토론 촉구'(41%)를 제시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음란물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음란물 시청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독교인은 10%에 불과했

18년 만에 선 넘어간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이란 도발

이스라엘이 1일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와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 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23일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을 공습하는 '복속의 화살' 작전을 개시했다. 지난 27일에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에서 폭격으로 사살했다. 이날 지상전 개시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새 국면이 들어갔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에 투입된 것은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4일간 교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철군한 뒤 18년 만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급습으로 병사 3명이 살해되고 2명이 납치되자 보복과 구출을 이유로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고전 끝에 민간인 사상자까지 내고 교전을 끝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패배로 평가된 군사작전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지상전 개시를 앞두고 국경 주변에 최소 120대의 전차·장갑차를 집결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WP는 지난 28일 이스라엘 북부 아엘레트하사하르 키부츠(집단농장) 인근을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 군사 분석가인 윌리엄 굿윈드는 주력 전차나 보병용 전투차량으로 식별되는 장비가 최소 86대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약 4만명의 군을 주둔시킨 중동에 추가 파병 계획을 밝혔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전 개시를 앞두고 페르시아어 자막을 붙인 영상 성명으로 이란을 자극했다. 그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국민을 향해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자유를 얻을 것"이라며 "광적인(이슬람) 신정주의자 소수에게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짓밟히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을 복종시키는 그들 정권이 매일 우리를 깊은 암흑과 전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런 자유를 얻을 때 두 고대 민족인 유대인과 페르시아인은 마침내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란 정권이 세계에 구축한 테러망이 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10년의 호황' 끝났나... 할리우드, 작품 40% 줄었다

넷플릭스, 훌루 등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열풍과 함께 10년 넘게 호황을 누리던

미국의 콘텐츠 업계가 급격한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작가들 파업으로 멈춰섰던 할리우드가 파업 이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파라마운트 등 대형 제작사들까지 정리를 당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29일 미국 할리우드 호황기가 끝나면서 주요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콘텐츠 제작이 중단되는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 할리우드는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작가와 배우가 모두 참여한 파업을 맞았다. 수개월 지속한 파업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업계는 활기를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더 주춤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최근 파라마운트가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앞두고 인력의 15%를 감원하기 위한 정리해고를 두차례 단행하는 등 여러 제작사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영화와 TV 산업 실업률은 8월 기준 12.5%에 달했는데, 자격이 되지 않아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미 실업수당을 받은 지 오래 된 실업자가 많아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스트리밍 붐이 애초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루는 매체 폭 뉴스의 설립자 매슈 벨로니는 "넷플릭스와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가 추가된 파라마운트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콘텐츠 시장에도 과열을 불러왔다"면서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제작되어 방영되고 있는 작품이 600여개에 달했는데, 어느 순간 주식 시장이 이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지 않게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회복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TV와 영화 제작 현황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프로드프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 전역에서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 작품 수는 2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40%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도 작품수는 20% 감소했다. 배우 겸 드론 촬영 감독으로 활동하는 마이클 포틴은 "지난해 할리우드 노조 파업 전까지는 거의 매일 촬영을 나갔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 22일 밖에 드론을 띄우지 못했다"고 BBC에 말했다.

할리우드의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있던 제작사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다른 주나 국가로 떠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LA 경제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LA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68만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에 연간 1150억 달러(150조 2268억 원)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카렌 바스 LA 시장은 지난달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레드라인 넘었나' ... 홍콩위성 TV 중소설미디어 차단

수천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홍콩위성 TV(HKS)의 중국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차단됐다.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과감하



게 보도해 '레드 라인'을 넘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웨이보 더우인 워터 등 HKS의 중국 내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들이 28일 차단됐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 회사 광고부의 한 직원은 "계정 업데이트가 중단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민감한 보도 때문으로 추정했다.

HKS의 공식 더우인 계정에는 자율 규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차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이 계정의 팔로워는 1438만 명, '좋아요'는 1억6000만개다. 가장 최근 올라온 영상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산둥의 한 농촌 관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HKS는 이전에도 항저우 배달 노동자 시위, 테루 입점 상인들의 권리 보호 시위, 후난성 류원제 재무국장 추락사, 중국인 유학생이 백지시위를 지지하는 동료 유학생을 협박한 사건, 류진 전 중국은행장 자수 등 민감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들 통해 '본토 팔로워가 홍콩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지난달 6일 HKS 웨이보 계정에는 "24시간 만에 팔로워가 100만명을 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중국은 올해 들어 소셜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했다. 중국의 대표적 관변 논객인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도 당의 뜻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당했다.

HKS는 2008년 홍콩에서 설립돼 2020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가오홍싱은 중국 저장성 출신의 공산당원으로 산터우상업은행 재건을 주도하는 등 금융업계의 거물이다. HKS의 공식 웹사이트는 광둥성 공안부에 등록돼 있다.

나토 수장 교체... 신임 워터 "트럼프 잘 알아, 미 대선 걱정 안 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수장이 바뀌었다. 10년간의 임기를 마친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사무총장은 1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마크 워터 전 네덜란드 총리에게 나토의 지휘권을 넘겨줬다.



워터 신임 사무총장은 전쟁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아시아와 중동 등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대선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는 두 후보 모두를 아주 잘 알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워터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덜란드 총리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과 4년간 함께 일했다"며 "그는 당시 우리에게 방위비를 더 많이 지출하라고 밀어붙였고, 그는 그것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압박했고, 나는 그가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추켜세웠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존중받는 리더"라고 평가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0. 안현경 (1881-1957)

안현경은 1881년에 오늘날 서울 종로구 필운동인 한양 성위동에서 태어났다. 홀아비가 된 그는 24세가 되던 1905년에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로 응모하여 그해 일본에서 5월 8일에 시베리아 선박을 타고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송지상(宋之相)으로도 썼는데 '현경'을 賢慶, 玄卿 또는 賢敬으로 적었고, 영어로 An Hyun Kyeng 또는 Ahn Hyun Kyung으로 표기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안현경은 카우아이섬으로 이동하였다. 하와이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1903년 8월에 만든 미주 최초의 정치 단체인 신민회 카우아이 지회에 그가 참가하였다. 그 후 안현경은 오아후섬 와히아와로 이동하였다. 그는 1909년 4월 하와이 오아후섬의 와히아와에서 결성된 대한민국회 하와이 지방총회 와히아와 지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듬해 7월에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자 하와이 각 지방 대표자와 함께 대한민국회 북미총회와 연서로 일왕에게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을 항의하는 전보문을 발송했다.

안현경은 1913년 이후 호황 한인 중앙학교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박종수 목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인 중앙학교에 진학한 장남과 호황 중앙학교에 진학한 차남을 위하여 안현경이 그해 12월에 1년 학비 20달러를 후원하였고, 박 목사의 딸을 호황 한인 중앙학교에 유학시켜 한인 여자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승만이 1913년 2월에 하와이에 정착하여 그해 9월에 태평양 잡지를 발행하였을 때 안현경은 태평양잡지 간사로 재직하였다. 이듬해 4월에 포와한인교회보를 발간하였는데 편집에 흥한식이었으며, 안현경은 발행인이었다.

1916년 11월에 이승만이 하와이 정부에 등록한 한인여학원에서 안현경이 이사로 활동하였다. 이 여학교는 1918년 9월에 한인기독교학원으로 개명하고 남녀공학의 민족교육기관이 되었다.

안현경은 1917년부터 1918년까지 2년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17년 초부터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인 30여 명이 릴리하에 있던 여학생 기숙사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1918년 7월에 호놀룰루에서 신립교회(新立教會)를 설립하였다. 그해 11월 16일에 국민회에 개재된 아래의 안현경의 '한인 교회 형편에 대하여'에서 그의 교회관을 엿보게 된다. "과거 수 십 동안에 하와이 한인 교회가 한 부분 더 성립되는데 관하여 일반 동포 사이에 혹은 비평도 하고, 혹은 찬성도 하여 피아간 언론이 없지 않으나 한 가지 이상한 사단은 특별히 주창한 사람이 없이 자연히 인심이 변경되어 하와이 한인 전체가 동성 상응하여 사방에서 불일 듯 됨은 이상하다 하겠지마는...누가 권세로나 법으로 압박하며 막을 수 없는 것뿐이다.

그러나 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으니... 한인 전체에 관계가 되는 일에 방관만 하고 앉을 수 없는 것은 또한 나의 책임이 되므로 남이 굶다고 하든지, 밍다고 하든지 불쾌하고 대세 만들어 몇 마디 기록함 인저.

오늘 한편에서는 말하기를 하와이에 많지 못한 우리 사람 사이에 종교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 하되 ... 만약 예수교의 명으로는 몇 부분이 있을지라도 큰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은 장차 그 도리를 깨달아 참뜻이 그 민족에게 가득하면 오늘 많은 부분이 하나 될 수 있고, 열부분이나 백부분으로 더 분열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하는 힘은 그 민족이나 그 나라를 위하여 서로 잘하기를 경쟁할 것밖에 없을 따름이라.

장차 형편도 이상 사실과 같거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종교상 일을 해가려는 사상이 차차 생겨나는 것



은 하와이 동포도 전일보다 모든 형편이 한층 발전되는 것은 우리 민족과 나라 생각하는 뜻으로 한족의 장래 기초를 세우고자 함인즉...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어찌 남의 힘을 바라고 지낸다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 장래를 희망하는 민족으로 그 백성 종교가 남의 정신과 다 인권 하에 두고 어찌 그 나라를 자기 정신으로 유지한다고 하리오....

근자에 형편을 보느바 새 교회가 생긴 후 하와이 한인 종교상 형편이 날로 진보되는 여러 방면이 있으니 첫째는 미이미교 목사들과 및 교회 책임자들이 부지런히 힘이 새로 나서 전도하기에 분주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교인 얻기에 전력하며, 각 지방에 설 사 없이 순행하여 교회가 없던 곳에 새 교회도 설립하며, 형제 심방에 친근하여 사랑하는 뜻이 전일보다 배승하니 이것은 참 교인 된 책임에 마땅한 일이라 할지오. 신립 교회에 형편을 말하면 전 일에 낙심되었던 교인을 새로 믿기를 권고하여 인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믿던 형제들은 더욱 믿음을 세워 천국 일을 위하여 성령하고, 우리 한인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주지를 가지고 일하고자 할 때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하나님 섬기기를 목적으로 나가는 고로 사방에서 교인이 다수하게 일어나는 이때 이것만 가지고도 하와이 한인 교회는 오늘 다시 부흥하는 시간이라.

두 교회 인도자가 마땅히 한 가지 매달아 행할 바 일은 서로 주지는 다를지라도 종말에 바라는 결과는 한 목적인즉 누구든지 큰 뜻을 가지고 내 교회를 흥왕하게 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전력하고자 할 때 피아간 다 교회에 대하여 비평과 흠점을 기회 삼아 시비를 주장하거나 혹은 교인들을 수단으로 유인치 말지며, 간교한 계책을 꾀하여 남의 교회 인도자를 모함하는 폐단이나, 내 교회에는 성신이 있되 다른 교회에는 성신이 없다는 말이나, 혹은 개인의 이름을 불러 아무개 교회라는 언사와 의를 팔아 개인의 이익을 도둑하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로 함당치 못한 언론을 말하면 이는 교인의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이 생길 뿐인즉 이와 같은 일은 일절 거절하여야만 거룩한 교회의 일이라 하노라.

혹이 말하기를 신립 교회가 설립된 후 어떠한 교회에서 모인 은전 일에 미이미 교회에 대하여 자금료를 많이 내지 않던 교인이 시방은 열심히 매명에 5달러, 10달러씩을 낸다 하니 이는 미이미 교회 인도자를 돕고자 하는 일인즉 미이미 교회에는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오. 이것을 가지고 혹은 비평하여 말하기를 내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생각이 없이 저와 같이들 한다고 걱정을 하나 이것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은 아일랜드 백성이 우리 한인보다 문명이 더 낫다는 사람으로도 자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기 나라 독립을 반대하였거든 어찌 한인 가운데인들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리오....

또 어떤 곳에서 모 씨가 말한 바 이 박사가 태평양 잡지에 글쓰기를 한인들이 미이미 교회 은혜를 받았고, 또한 교회에 부분을 세우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하며, 이 박사가 신립 교회에 한 임원이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축을 받았다고 하니 이러한 변론을 다 추신할 필요가 없지마는 한 가지 생각하여 볼 것은 어떠한 때면 하와이 한인이 이 박사에 정신으로 산다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박사가 다른 사람에게 주축을 받았다고 하니 그 경우를 분석하기 극란하며, 또 이 박사가 잡지에 말하기를 탄 교회 설립이 불가하였다 하였으면, 한인들은 이 박사 말만 듣고 잘 될 일이나 못 될 일이나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인가. 설령 이 박사가 전 일에 한인이 교회를 따로 해 가는 것이 불가하다 하였을지라도 오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고는 할지언정 도리어 비평함은 불가한 것이라.

"한인들이 자조로 교회를 세워 우리끼리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이 자기 주장하는 교회에 방해가 될까 하여 고함이다. 이처럼 하면 우리의 사랑이 한층 더 발전되어 내가 내 일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 명백할 것인즉 이것도 한인 된 자의 한 기회라 하노라."

그해 12월에 신립교회는 평신도회를 열고 교회를 한인기독교회로 개명하였고, 미국 회중 교회의 모범을 따랐으나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교회를 자유교회 또는 독립교회라고도 불렀고, 장로와 집사가 없이 평신도 중심으로 선교부장 중심의 이사회에서 교회 치리를 담당했다. 안현경은 한인기독교회 이사회의 위원으로서 전도에 힘썼고, 교회 밖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1919년 삼일 독립 만세운동 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해 7월에 안현경이 원동 시찰 겸 통신원으로 임명되었고,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하와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해 11월에 이승만을 따라 안현경은 중국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및 각부 총장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는 미주지역 대표 자격으로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 상임위원회 군무위원 및 정무조사 특별위원회 외교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1921년 7월에 이승만이 호놀룰루에서 동지회를 조직할 때 안현경은 민찬

호, 이종관 등과 함께 임시정부를 후원했다. 이듬해 임시정부 교민 단령에 따라 대한인 국민회를 하와이 대한인 교민단으로 개편하고 총무가 되어 구미위원부를 후원했고, 기관지 국민보 주필로서 활동했다. 1923년 12월에 교민들의 금주와 금연을 장려하고자 안현경 등은 한인교총회를 조직하였다.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제15회 연회가 1935년 1월 3일 저녁 7시에 호놀룰루 스킨스트리트 한인기독교 예배당에서 열렸다. 박동완 목사가 30분간 기도를 인도한 후 전년도 회장 최선주가 개회를 선언하고 각지 대표의 대표증을 조사 접수한 후 연회를 조직하였다. 회장 김형식, 부회장 정운서, 서기 박준범, 순서 위원 박동완, 규칙 위원 박동완과 김형식, 후보자 진행위원 양흥엽과 조석진, 통계표 위원 조석진, 성만찬 위원 김형식을 선정하였고, 안현경은 이운구와 함께 재정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튿날 장 봉 목사의 기도로 개회하여 이사를 호선하였다. 중앙이사국장 박동완, 서무와 서기 이종관, 선교부 부장 민찬호, 부원 박동완, 교육부 부장 김형식, 부원 최성대, 재무부 부장 정운서, 부원 이종관이었고, 안현경은 사회부 부장이었고 부원은 정운서였다. 중앙이사국 이사 9인을 매년 3인씩 개선하였는데 안현경은 민찬호와 박동완과 함께 1935년까지였고, 이승만, 이종관 그리고 최성대는 1936년까지였으며, 장 봉, 김형식 그리고 정운서는 1937년까지였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가 1921년 스킨 스트리트에 첫 예배당을 마련하였다가 예배당 확장을 목적으로 1928년에 방대한 후 약 10년간 신흥국어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고, 1938년 4월에 릴리하 스트리트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서울 광화문을 본뜬 예배당을 신축했다. 그해 개최한 제18회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연회에서 안현경은 재무로 선출되었고, 그해 한인기독교회 세례교인은 1,263명이었다. 한국인 자력으로 해외에서 최초로 세운 민족 교회였다는 점에서 선교 한국 역사상 특기할 만하다.

1941년 4월에 호놀룰루에서 미국 내 각 한인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할 때 안현경이 동지회 중앙부 대표로 참석하여 민족운동 전선의 통일과 독립운동을 강화했고, 그해 7월에 재무부를 확대할 때 5인 위원 중 한 명으로 포함되었다. 1943년 말 동지회가 연합위원회에서 탈퇴하자 동지회 대표 김영기 등과 함께 안현경이 동지회를 떠나 국민회에 가입하였다.

안현경은 1957년에 향년 76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1995년 대한민국 정부는 안현경에게 그의 독립운동의 공을 기리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유해는 1998년에 봉환되어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새로 신설된 학위과정

Ph.D. in Financial Economics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BA)

Master of Fine Art (MFA) / Doctor of Fine Art (DFA)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2. 경건을 방해하는 요인들 (2)

2)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는 변명 (1554)'

(1) 속칭 "니고데모씨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태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항상 문제이다. 오늘날 풍요로운 사회에서 보수진영의 교회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질한 중의 하나이다. 칼빈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속칭, 니고데모씨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별명은 칼빈이 요한복음 연구 중에 힌트를 얻어서 붙인 것이다. 칼빈은 1536년 제네바를 방문하여 파렐의 권유에 의해 불참해 있던 날 저녁에 파렐에 이르는 마케리트 법정을 방문했다. 칼빈은 몇 편의 논문을 통해 종교적인 타협과 달콤한 설득력이 지닌 이 간사한 예언자들을 공격했다. 여기서 "변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본다.

(2) 칼빈의 기본주장 "니고데모 씨들" 비판

칼빈의 기본적인 주장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의 영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공적인 예배, 정직한 생활, 가톨릭 교회의 우상숭배적인 관습에 대해 순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는 종교적인 미지근함에 대해 비평하면서 네 가지 유형의 "니고데모들"을 비판했다.

첫 부류는 많은 복음주의적인 사제들과 주교들로서 가톨릭의 강단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톨릭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은 그들이 개혁되지 않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미신당 어리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인상을 청중들에게 주고 있었다.

두 번째 부류는 법정의 숙녀들과 종교를 가지고 장난하면서 달콤한 신학적인 고상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부류였다. 이들은 제네바가 지나질 정도로 엄격한 도시라고 입을 모아 공격했다. 이들의 종교는 신학적인 살롱(salon)의 종교였다.

세 번째 부류는 문학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철학에 심취했으며 교향청의 어리석은 미신을 용납했다. 그들은 상아탑 안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신앙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이나, 예배드리는 일이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행위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들은 기독교와 철학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자들이다. 칼빈은 좀 더 극단적인 어

투로 그들을 꾸짖는다. "만일 지구상의 모든 인문학들이 기독교인들의 열정을 열어볼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면 차라리 그 모든 인문학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편이 더 나으리라."

마지막 부류는 호소력이 강한 주장을 펴는 자들이다. 여기에는 상인과 평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들을 지도하는 목사들이나 사제들이 교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업과 평일의 생활 및 여흥거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3) '교황권 안에 있는 신앙인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1543)'

(1) 양심에 따른 예배 앞에서 언급한 두 권의 저서에서 다른 문제는 개혁되지 않은 교회가 지배하는 교황에서 그 교회의 종교적 관습과 신앙에 따르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개혁신교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것이었다. 칼빈은 생명과 재산을 잃고,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며 고국에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외국 땅에서 거친 피난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칼빈이 택한 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게 법과 관습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생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그 논문에는 그들에게 자세한 답변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경건의 확대된 적용이기도 하였다.

(2)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칼빈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대답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물리적인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측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 자신의 섭리에 의존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기독교인의 행위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들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며, 우리는 그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가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

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공공연하게 고백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관해 요구하든 안하든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가? 그 같은 요청을 받은 자들은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신자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참된 예배와 기독교교육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관성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자가 주님께 의무를 완수하도록 이끌어주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구해야 하며, 일단 구한 뒤에는 전력을 다해 완수해야 한다."

(3) 미사 문제에 대한 칼빈의 정답

칼빈이 이 논문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문제는 이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가톨릭교도들 사이에 있을 때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가? 그는 성상들과 성골들(기타 여러 가지 의점들)을 숭배해야 하는가? 먼저 답변해야 할 문제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이다. 우상숭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인간이 마음이나 영혼 안에서 상징된 그릇된 환상을 통해 한분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향기를 부패시키고 왜곡시키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거나 전이시키는 경우이다. 이런 사실은 우상숭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본문이 칼빈의 개종의 시발점을 형성한 핵심구절이라는 가정을 증명해준다.

(4) 마음과 육체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의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가? 칼빈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우상 앞에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부르심을 뜻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ITS 교수)

부르심을 따라

얼마 전 아끼는 제자에게서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참석할 수 있는지 연락이 왔다. 며칠 후에 다른 제자도 그 주 토요일에 안수식이 있다고 전화를 했다. 젊은 제자들의 목사 안수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안스럽기도 하다.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굵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모욕하는 시대이다. 교계 안에서 마저 동성애 이슈를 둘러싸고 교단이 분리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 이런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할 목회자의 길은 단단한 각오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목회 후보생들에게 선배 목사가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 제목처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길이다. 목사 안수를 받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목회로의 부르심을 생각해본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회나 선교의 뜻을 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평신도로서 신학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신학교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목회의 소명이 없이 이학을 했다거나 학업 과정 중에 소명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제자도 있다. 그런 학생을 보면 가르침의 보람이 뿌듯하게 다가온다.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서 졸업 후에 다른 일을 하는 제자도 있다. 사무엘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 사명을 맡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목회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쉽지 않을 것이다. 몇 년 전에 베네딕도회의 규칙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들이 사제를 세울 때 얼마나 까다롭게 소명을 확인하는지를 알고 놀란 적이 있다. 단단한 결심이 없으면 아예 성직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부르심에 대한 정의는 종교개혁 이후에 광범위해졌다. 성직자에게만 사용되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재해석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받은 부르심을 일차적인 부르심으로, 각자의 직업을 수행하는 부르심을 이차적인 부르심으로 정의하였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다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모든 직업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이다. 목회학 석사의 영어표현인 Master of Divinity는 'master of divine,' 즉 거룩한 것을 통달한다는 뜻을 지닌다. 목회자는 사도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존재와 품성 등 거룩에 속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드러내야 한다.

목회의 길을 가려는 제자들을 제대로 준비시킨 것인지 돌이켜보는 부족한 선생이지만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격려하고 싶다. 먼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았던 모세,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예레미야가 좋은 예이다. 어쩌면 큰 사명 앞에서 아무 망설임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맡기신 일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주신다. 내 능력이 아닌 그 분을 의지할 때 맡기신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수행하는 힘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목회의 과중한 임무로부터 목회자를 지켜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렘1: 18-19). 타협하지 말기를,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기를 목사 안수를 받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요세기니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청중이 계시며 우리는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linda.pyun@itsla.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na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and regions.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지금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

2024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Seek His Face'라는 주제로 2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인 각 나라 교계 대표들이 한 마음으로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필자는 이날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기도만이 회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다음은 연합기도회에서 필자가 올려드린 미국 대통령선거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22일 호주의 타

즈마니아 해안에 돌고래 230마리가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돌고래를 이끄는 리더 돌고래가 방향을 잘못 잡아 바다로 가야할 길을 육지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참변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지도자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잘

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 집단은 떼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최고의 부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총기사고와 마약사고, 인종혐오 범죄와 동성혼 찬성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살듯이 무엇보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아처럼 배움을 입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합니다. 미국의 처음 사랑

인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이키는 주지사, 연방의원, 주의회 의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 도시마다 대학교와 공립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까지 여러분의 특별 비상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 두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모두 공산당의 손에 넘어갈 때, 멸망 직전의 나라를 바라보며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산초량교회에 모여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가능했던 인천상륙작전이 맥아더 사령관의 손으로 승리하는 기적

을 주셨고, 기독교 100년 만에 천만 명이 넘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미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미스바 회개운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미국을 다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에 평화와 생명을 주는 강대국으로 다시 일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미국을 위해 전심을 다 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온 힘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songpak@hotmail.com



LA동부장로교회 임직자들이 예식을 마치고 회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LA동부장로교회 장로취임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섬기는 자 모두가 하나 됨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되길"

LA 동부장로교회(담임목사 김정오) 장로 취임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지난 9월 15일(주일) 오후 4시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김종오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김천집 장로 기도와 김기웅 목사(노회 총무)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기웅 목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행 20:28)'

란 제목으로 "오늘 임직 받은 자들을 보면서 특권, 의무, 교제를 생각해본다. 특권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사신 교회를 섬기게끔 오늘 임직 받은 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둘째 직분의 의무를 생각하기 바란다. 나의 언행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제자

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교제를 생각해본다. 본문에서 장로들과 바울의 교제의 모습처럼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있기 바란다. 섬기는 자 모두가 하나 됨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깊은 하늘나라의 교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정오 당회장 집례로 서약과 취임/안수 예식, 공포, 장로패 및 임직패 증정, 김재현 목사(LA고은장로교회)와 김성현 선교사(노회 서기)의 권면, 승광철 목사의 축가에 이어 김희수 목사(LA 동부장로교회 은목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임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 이규장, △안수집사: 강태봉, 김해진, △권사: 강종례, 고복순, 김안자, 김주은, 김치욱, 김혜수, 노미옥, 박소영(나오미 박), 윤경애, 이명희, 최임선, 최지영, 황정희.

(정리: 박준호 기자)



미성대와 함께 하는 차세대 목회자 부흥컨퍼런스가 시애틀에 있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시애틀 페더럴 웨이에서 열렸다.

미성대 차세대 목회자 부흥컨퍼런스 개최

"참된 권위와 순종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 때 가능"

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와 함께 하는 차세대 목회자 부흥컨퍼런스가 지난 9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시애틀에 있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시애틀 페더럴 웨이에서 열렸다. 부흥컨퍼런스는 팬데믹 이후 이민교회의 회복과 치유, 선교와 부흥 전략, 사회적 참여 등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돼 올해는 'Restoration, 가정회복과 목회'이란 주제로 목회자 가정의 회복, 힐링 등에 초점을 맞췄다. 미성대가 주관한 컨퍼런스는 미주성결교회 소속 3040 목회자 사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 찬양사역자 윤주성 목사의 경배와 찬양, 그룹 친교로 시작되었으며, 둘째 날부터 상담가 리디아 전 박사(아사포시픽대 겸임교수)와 이상훈 총장의 강좌와 친목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조승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

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하시며, 이스라엘 온 회중을 여호수아에게 복종케 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참된 권위와 순종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를 때

외대·GCEO 합창단 '우크라이나 전쟁고아' 돕기 정기공연

남가주 외대 동문회(회장 노세희)와 GCEO 총원회(회장 에드워드 구)가 주관하고, 외대 합창단(단장 김재권)이 주최한 가운데 제7회 외대·GCEO 합창단 '우크라이나 전쟁고아' 돕기 정기공연이 지난 9월 22일(주일) 오후 5시 지퍼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공연은 맥심 쿨진 박사와 오위영 목사가 지휘한 가운데 김주영이 반주하고, 테너 양두석, 오정록, 오위영, 앙상블로는 소프라노 조은아, 김주연, 엘토 원순일, 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정과 목회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상훈 총장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고 사모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과 힐링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목회 사명과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콘퍼런스 강좌 시간에는 리디아 전 박사가 지도자로서의 자기이해와 감정 처리, 부부 대화법, DISC 행동유형과 축복기도 등 세 차례 강연했다. 또 이상훈 총장은 교회 회복의 핵심 DNA에 대해 강의했다. 부흥컨퍼런스는 일회성을 끝내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며, 행사 후 약 4주 정도 소그룹 모임과 후속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논문 등으로 출판할 계획도 있다.

(기사제공: 미성대학교)

(정리: 박준호 기자)



사랑의빛선교교회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지찬 교수

사랑의빛선교교회 가을 말씀 부흥회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별처럼 빛나는 제사장의 삶이 되길"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2024년 가을 말씀 부흥회'가 27일(금)-29일(주일)까지 '주가 나를 불드시니'의 주제로 김지찬 교수(총신신대원 구약학 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27일 저녁 7시45분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윤대혁 담임목사의 인도로 말씀집회를 위한 통성기도의 시간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단에 오른 김지찬 교수는 '열방의 복으로 불드시니'(창 12: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교수

는 "서른이 되던 해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36살 나이에 총신 신대원 교수로 사역을 시작해 지난 6월 32년 만에 은퇴했다. 지금은 부산수영로교회 협동목사로 8년째 사역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며 가장 기쁜 일은 제자가 담임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더 기쁜 건 이렇게 와서 보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는 것"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삭, 야곱을

지나 요셉 때에 이루어 졌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 가라고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뿐이다. 이런 1세대도 아브라함처럼 고국을 떠나 이곳에 왔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살면 자손 대대로 내려가며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복의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말씀을 믿고 순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고 창대케 하실 것이고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비전을 갖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석 집사의 특별찬양이 있는 후 개인 기도 시간으로 첫날 집회를 마쳤다. 둘째 날 집회는 토요일 저녁 7시 '거룩하게 살도록 불드시니'(레위기 27:28-29), 셋째 날 집회는 주일 예배시간을 통해 '자녀를 삼키는 땅에서 불드시니'(여호수아 4:19-24)의 제목으로 집회가 이어졌다. (이성자 기자)



만남중창단 계윤실 지휘자

만남중창단, 가을 정기공연 개최

"음악회 수익금 전액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에 기부"

만남중창단(단장 이경태, 지휘 계윤실, 반주 김성희)은 'LOVE BEYOND, 사랑 저 너머'라는 주제로 실리콘밸리 살롬교회(곽정빈 담임목사)에서 미안마와 필리핀 한센인들을 돕기 위한 가을 정기 음악회를

지난 9월 14일(토)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미안마와 필리핀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서 풍성한 음악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제7회 외대·GCEO 합창단 정기공연이 지퍼홀에서 열렸다

20명 단원들이 '첫사랑', '시간에 기대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나하나 꽃 되어' 등의 서정적인 한국가곡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내 삶의 주인', '신자되기 원합니다' 등 아름다운 성가곡들을 열창했고, 앵콜곡으로는 '아름다운신(내 안의 주를 행한)'을 불러 관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이번 가을 음악회는 실리콘밸리 한인합창단(단장 안상석, 지휘 박중수, 반주 최미셀)도 함께 무대에 올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살려냈다. 40여 명의 시니어들로 구성된 한인합창단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추심',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등 친숙한 곡들을 열창하며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음악회의 헌금은 전액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 김진덕·정경식 재단(이사장 김순란), 실리콘밸리 한인합창단 등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후원에 동참했다. 만남중창단은 2015년 창단하였으며, 봄, 가을 정기공연을 통해 북가주 한인사회에 기쁨과 사랑을 선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연 헌금으로 불우청소년, 지적발달 장애인, 한센병 환자 선교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5회 정기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박병섭 목사)는 10월 14일(월) 오후 6시 산수갑산2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909-6467, 718-490-6316

뉴욕교역자연합회, 뉴욕영적각성집회
 뉴욕교역자연합회(회장 이규형 목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10월 4일(금)부터 10월 6일(주일)까지 오전 10시30분 (교역자 세미나), 오후 7시30분 (연합 집회)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정현영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718-440-2287

미주심리치유상담연구원, 심리치유상담 컨퍼런스
 미주심리치유상담연구원(하정민 목사)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라마나우 기도원에서 30년간 사역을 이어온 최귀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심리치유상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선착순 50명이며 심리치유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문의: 347-804-2645, 917-682-4566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특별새벽부흥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일어나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수 1:2)"라는 주제로 10월 14일(월)부터 10월 26일(토)까지 오전 5시45분에 특별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229-0858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 G3 컨퍼런스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요셉 목사)는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해 고민하는 교사 및 부모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G3 컨퍼런스를 10월 25일(금)과 10월 26일(토) 본교회에서 열린다. 등록은 10월 6일까지이며 등록비는 \$20이며 컨퍼런스 등록링크: <https://odpc.church/payment/>이다.
 ▲ 문의: 정진호 목사 brian.jung@opendoorpc.org

2024 NEXT 이민준 포럼
 NEXT 이민준은 '선교적인 교회, 목회, 선교적인 설교, 해석학'을 주제로 10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오후 7시 30분 벨엘교회에서 송만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고성준 목사(수원 하나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2024 NEXT 이민준 포럼을 개최한다.
 ▲ 문의: 310-413-5333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여름 인터십 세미나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회장 장연란)는 '여름 인터십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Larry Henschel(Director of international-Future 5G at the Pentagon)를 강사로 초청하여 10월 5일(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줌(Zoom)을 통하여 개최한다.
 ▲ 문의: 443-996-9171

제 19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회장 정승욱 회장)는 10월 12일(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벨엘교회(담임 백신중 목사) 본당, 체육관에서 열린다.
 ▲ 문의: 703-844-0355



뉴욕한인목사회 제2차 임.실행위원회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한인목사회 제2차 임.실행위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아름다운 목사회"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10월 1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동원장로교회(박희근 목사 사무)에서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었다. 김정길 목사(서기)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권제더린 목사(여성분과), 설교 박현영 목사(세미나분과), 봉헌기도 및 축도 박희근 목사(행사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박현영牧사는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현상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현상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말세에 우리는 무관심과 교만, 탐욕과 무절제, 불효와 불평, 무정함과 거짓을 벗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장 정관호 목사 인도와 기도로 시작된 회무는 서기 김정길 목사의 회원점명 후 의장 정관호 목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한필상 목사의 총무보고, 김정길 목사의 서기보고, 안경순 목사의 회계보고로 진행됐다. 이날 신안건으로는 회칙 개정안 △제1장 총칙 제3조 △제2장 회원 제5조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제5장 회의 제12조, 제13조 △제10장 부칙 제23조를 심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했다. 모든 순서는 한준희 목사(부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뉴욕목사회 임시총회는 오는 10월 8일(화) 뉴욕늘기쁜교회(김홍석 목사)에서 열리며, 14일부터 23일까지 종교개혁지 순방, 11월 4일부터 5일 동세세미 줄 성경세미나를 개최한다. (홍현숙 기자)

2024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개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김동권 목사)가 9월 20일(금)부터 22일(주일) 3일 동안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를 클로스터에 있는 뉴저지한우리교회(담임 박상돈 목사)에서 개최했다. 호산나 전도대회는 매년 주로 6월에 개최가 되고 있지만 이번 회기는 평신도 강사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오는 9월 20일 열리게 됐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측은 이번 호산나 전도대회는 특별히 신실한 평신도들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웃으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국 연에게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초청, 첫날은 하나님이 남들을 즐겁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탤런트 안문숙 집사가 강단에 섰고, 둘째 날은 이기적이고 진짜 별다른 사람인 나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듬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뮤지컬 배우 선우 집사가 간증했으며 마지막 주일 집회는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해온 탤런트 정영숙 권사가 지나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동행하시며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하여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단의 시간을 진행한 김중국 목사(뉴저지새언약교회)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회중석에서 일어나 결단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으며 축도로 집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호산나전도대회 중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소설은 읽을 시간이...

<1면에서 계속>

1. 메시지와 삶의 연결

말레니엄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느끼는 갈급함은, 절대적 빈곤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의 한계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면 모를까,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세대와 함께 자라고 그들의 삶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면, 어릴 적 당시 이십 대를 살고 있는 청년어른들은 '산기도'의 영성으로 다져진 세대였다. 산속 좋은 기도 자리를 찾는 경쟁도 매우 치열했고, 나무 하나를 잡고 밤을 새워 부르짖던 모습과 소리가 아련히 기억난다. 나의 세대 젊은 목사들과 리더들은 산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태생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넓혀주는 것은 소설이라는 장르였다. 특히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5년 주기로 꺼내 보는 최고의 소설이다. 현대의 고도로 발전된 도시가 주는 문화의 편리한 구조 속에 다른 상상을 하지 못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면 주기적으로 읽기를 추천한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동시에 세상이 좇는 가치를 따라 사는 '세련된 신앙인'이 되겠다는 사람들,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행 승차권을 예약해 놓은 채 현재 삶속 인기와 화려함과 명예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성공의 본을 보여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합리적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환난의 시대 종교적 전쟁을 겪으며, 장애를 가진 팔아이 때문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옥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인지, 자세히 반복해서 체험해보기 바란다. 그가 보여주는 진리의 메시지가 그의 비유형식의 글을 통해 당신의 삶을 파고들 테니 말이다. 그의 소설은 그의 실제 삶을 허구의 아름답

다운 이야기로 풀어 당신의 삶과 연결해 줄 것이다.

2. 내면의 성찰과 씨름을 통한 성장

소설은 인간의 삶과 감정과 경험에 관한 것을 다룬다. 기독교 사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서는 불행히도 이러한 경험을 주지 못한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현실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고 버티면서 많은 종교적 행위와 공상으로 풍선처럼 부풀려 채운 다음 그것에 "기독교적"이라는 태그를 붙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있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 중세 수도원 시절부터 오늘까지 '기독교적 삶'의 정의에 대한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일치하는 진리는 '고독, 침묵, 금식'이 내면의 영성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다. 즉, 덜 바쁘고 덜 분주할수록 기독교적으로 살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는 뜻이다.

좋은 소설의 특징은 힘겨운 내면의 성찰로 초대한다는 것에 있다. 본성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 내면의 진리의 성찰을 도와줄 소설가와 만나보는 것은 어떻게?

3. 더 깊은 말씀의 묵상 속으로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파헤치는 것에 열정적이지 않을까? 많은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더 쉽게 더 많이 성경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교회에서 했던 교육과 노력 등이, 성경을 하나의 신비한 절대 경전으로, 어렵고 파헤쳐야 하는 비밀 지도로 인식하도록 인도한 것만 같았다. 사실 그 어떤 재미있는 소설보다 성경이 더 문학적이다. 성경은 재미있고 매력적이며 아름다운 문체들로 가득하다. 예수님은 소설의 형식과 같이 허구의 비유형식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언자들은 판타지 요소가 가득한 언어로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다. 만약 성경을 이미 많이 읽고, 읽을수록 재미가 없어지고, 다 아는 내용 같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성경의 문학적 요소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 (물론 이에도 성경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가장 중요하다) 영웅의 이야기, 비극, 서사시, 비유, 상징, 이미지, 속담, 사랑에 관한 시, 찬송가, 예언서, 풍자, 행위예술 등을 담고 있는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문학예술이다. 분별력을 갖춰 종교성에 속고 살고 싶지 않다면 예언자와 친해져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겠지만 차오르는 분노와 설움이 한계에 다다라 쏟아 놓을 곳이 필요할 때는 다윗의 시들을 옆에 두어야 한다. 단순하고 명확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솔로몬의

닫는 것이 기독교적인 태도일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온 세상을 웃게 하고 울린 소설에는 보편적 진리와 은총이 존재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최근의 개인적 체험은, 소설을 통해 상상력이 키워진 청년들이 성경을 다시 재미있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귀한지, 속담, 사랑에 관한 시, 찬송가, 예언서, 풍자, 행위예술 등을 담고 있는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문학예술이다. 분별력을 갖춰 종교성에 속고 살고 싶지 않다면 예언자와 친해져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겠지만 차오르는 분노와 설움이 한계에 다다라 쏟아 놓을 곳이 필요할 때는 다윗의 시들을 옆에 두어야 한다. 단순하고 명확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솔로몬의

분주함과 속에서 정신이 없다고 느낄 때 소설을 펼쳐 보기를 바란다. 그 잠깐의 여행은



잠언을 새기고, 갈 곳 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갈급하다면 사도 바울의 글들과 동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짧은 생애 동안 읽어야 할 중요한 너무 많은 신앙 저서가 많기 때문에 문학 작품은 성경에서만 읽고 즐겨야 할까? 한정된 여가시간 동안 성경을 읽을 시간도 부족하다면 굳이 소설읽기라는 여가시간이 필요할까? 아니면 기독교 관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시나 문학작품을 가끔 외식하듯 읽어야 할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정되고 온 세상이 주목하는 소설이나 문학 작품에 눈과 귀를

또 다른 진리를 선물할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좋은 소설을 펼쳐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의 고단함이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대서사 속 한 에피소드일 뿐임을 경험하게 해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시간적 우선순위를 드리고 헌신하기를 결단한 열정의 리더도 때로 좋은 소설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독교 문화 속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하며, Soli Deo Gloria! by 서나영, TGC

피종진 목사 10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t(Th.D)

- 1(화) 오후 WRC 국제적십자 (총재 권세라) / KOREA HOUSE 010-7675-0002
- 2(수)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관성 목사) 010-2391-3004
- 3(목) 저녁 예산 백합수양관(원장 김정애) 010-9350-7004
- 4(금) 낮 인천 송도국제도시 빛과소금교회(조광원 목사) 010-8248-7004
- 5(토) 오후 한국교회 회복운동(총재 한요한 목사) 010-9578-0049, 정진회 목사
- 7(월) 오전 국민일보대담 한국기독교연합회(대표 한영훈 총장) 010-2009-7272
- 7(월) 저녁 서울 성령순복음교회(백현신 목사) 010-2042-0591
- 7(월)~8(화) 낮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 9(수) 오전 구리 국제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총장 최영 목사)
- 10(목) 오전 연세대학교 총동문 부흥협의회 / 연세대 백양누리
- 11(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총연합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 12(토) 오후 Special Blessing Service
- 13(주) 오후 서울 열린교회(최태선 목사) 010-3298-8023
- 14(월)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김문진 목사) 서울 강남 영동제일교회(강석훈 목사) 02)518-5561
- 15(화)~18(금) Mission to Trip Asia
- 20(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 21(월) 오전 KAICAM 목사 안수식 /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
- 21(월) 경산 빛나는교회(정경화 목사) 010-7706-0635
- 22(화) 오전 한일산기도원(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 노헤이마부흥성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 23(수) 오전 화성 꿈넘어꿈교회(김현수 목사) 주최 : 월드기독교총연합회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회 목사) UN Day 연합성회 010-7567-8291
- 24(목) 오전 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97
- 25(금) 저녁 서울 누가선교연합회(김성만 목사) 주최 : 한미연합부흥사단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 27(주) 저녁 대전 주안정교회(전정순 목사) 010-5255-7777
- 28(월) 오전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정기총회(대표회장 박승주 목사) 010-7561-0191 한성교회(이승현 목사)
- 29(화) 오후 서울 축복기도원(박영화 목사),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07(동원) Fax. 02)401-7770



제16회 남가주한인장로협 주최 사랑의 찬양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16회 남가주한인장로협 주최 사랑의 찬양제 열려

“선교사와 자녀들을 돕기 위해 16년 동안 이어져”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서경원 장로) 주최 제16회 선교와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가 9월29일(주일) 오후 5시30분 나성한미교회(담임 홍충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경원 장로는 “사랑의 음악회가 불우한 이웃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와 자녀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6년 동안 개최되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선한 일을 위해 장로협의회가 계속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엔 장로(남가주한인장로협 총무) 사회로 열린 찬양제는 나성한미교회 중창단(지휘 이준실), 실비치사랑교회성가대(지휘 송종현), 아리랑여성합창단(지휘 김정민), 보블

리스선교합창단(지휘 김철이), 레위성가단(지휘 강정엽), 미주여성고향(지휘 오성애), LA 목사중창단(지휘 서문옥), 무궁화여성합창단(지휘 지경), 외대코랄(지휘 오우영),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장진영)이 출연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으며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이 연합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부른 뒤 홍충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찬양제가 열리기전 이득표 장로(남가주한인장로협 수석부회장) 사회로 열린 예배는 서경원 장로가 환영인사, 이어수 장로(중경회장) 기도, 홍충수 목사의 ‘기뻐 춤추는 예배자 다윗(삼하 6:14-15)’의 제목의 설교, 이후주 장로(부회장) 헌금기도, 김경세 장로(고문) 특송으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연대 남가주동문회와 함께하는 의료 & 건강 무료 박람회 기자회견에서 수잔정 회장이 박람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대 남가주 동문회 주최 대규모 무료 의료 & 건강박람회 열린다

12일(토) 은혜한인교회 오전 8시30분~오후 2시30분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회장 수잔 정 박사) 주최 2024 연세 의료 & 건강 박람회가 오는 12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본당(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9월30일(월) 오전 LA케어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에서 열렸다. 수잔 정 박사는 “2010년도에 차병원에서 건강박람회를 했었는데 당시 건강보험이 없었던 사람이 많아서 성황리에 열렸었다. 두 차례 차병원에서 그리고 굿사마리탄병원에서 박람회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건강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게 되지만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장소를 은혜한인교회로 정했으며 그곳에 방문하는 분들 중 우울한 분들과 불안증에 걸린 분들을 간단한 검사를 한 뒤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독감 예방 주사, 혈당 및 혈압 검사, 유방암 검사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뇌졸중, 중풍 등의 위험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다. 또한,

20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당뇨, 콜레스테롤, B형 간염, 신장 기능 등 5가지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피검사가 제공되고 이에 따른 간단한 상담 및 병원 추천 서비스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우울증과 불안 증 등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우울증 및 불안증 선별 검사와 더불어 가정 상담, 아트 테라피(Art Therapy) 등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또한 생후 6개월부터 5세 아동을 위한 발달 선별검사를 한미 특수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5세 이후 아동을 위해서는 행동 발달 상담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2024 연세 의료 & 건강 박람회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나눔의 장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예방하고 돌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며 “많은 참여하여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살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310)293-5054, (818)497-6100 (박준호 기자)

오렌지한인교회, 찬양부흥회 개최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지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오렌지한인교회(OKC 담임 정유성 목사)는 찬양부흥회를 9월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 오니(겔37:1-10)’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정유성 목사는 “금요일부터 시작된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부흥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지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OKC교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성 목사 사회로 29일(주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 집회는 이종현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이번 부흥회 강사로 나선 정유성 담임목사가 ‘성령의 바람 불어오니...군대가 되더라(겔 37:1-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유성 목사는 “이번 부흥회의 주제말씀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며 “첫째 마른 뼈이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었고 환상 속에 마른뼈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

에 살아왔던지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필요한 자이며 여전히 목마른 자이다. 두 번째 모든 회복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마른 뼈를 살리시고 엄청난 큰 군대로 세우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도에 집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군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소생케 된 자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 말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다음세대까지 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집회를 위해 정유성 목사가 만든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를 회중들과 함께 부른 뒤 정유성 목사의 축도로 집회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OKC찬양부흥회에서 정유성 목사와 찬양팀이 찬양인도하고 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유튜브 시 강의에서 제임스 구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유튜브 시 강의

챗GPT & AI들을 잘 사용하면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작 가능

제3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강의가 9월30일(월) 오후 7시 어메리카웨스트칼리지(학장 홍영표 박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제임스 구 목사(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와 그레이스글로벌비전스쿨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열린 강의를 했다. 첫 번째 시간에는 YouTube 및 AI에 대한 기본이해 및 목회와 선교 적용 사례에 대해 다루었다. 제임스 구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청빙할 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유튜브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브영상작업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이라며 “유튜브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교회사역은 물론 선교에도 효과적으로 사역이 가능하다. 특별히 유튜브채널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챗GPT등 AI들을 잘 사용하면 여러 나라 언어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이 초기버전이라 완전한 구어체로 변환이 되지 않지만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에서 번역서비스가 잘되어있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는 만큼 언어부분은

영어를 기본원고로 정한 뒤 다른 나라 언어로 변환을 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AI프로그램 시범을 보이는 시간을 가졌는데 playground AI, msdesigner, postermymwall, canva, vrew 등 무료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12월2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열리게 되는 이번 강좌는 △2강: YouTube Channel, Video, Shorts, Live, Playlist Strategy, △3강: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4강: YouTube Transcript & AI 활용, △5강: AI 도구를 활용 다국어 YouTube Subtitle 제작, △6강: AI Video Editing and Image Generation 도구, △7강: AI Voice Generator 활용, △8강: AI 도구를 활용한 포스터, 배너, 섬네일 이미지 등 제작, △9강: AI 도구를 활용한 목회와 선교적 활용, △10강: AI 도구를 활용 사례 및 수요로 이어진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사랑의교회 영적각성집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영적각성집회를 ‘거룩한 전성기를 회복하라(시 51:12)’라는 주제로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성회의 강사는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4일(금) 오후 7시 30분, 5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6일(주일) 1-3부(오전 7시5분, 9시5분, 11시5분)이다. ▲ 문의: (714)772-7777

은혜한인교회 2024 추계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2024 추계부흥성회를 ‘복음의 전달자(마 28:16-20)’라는 주제로 오는 10월3일(목)부터 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성회의 강사는 김문훈 목사(부산포도원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3일(목) 오후 7시30분, 4일(금) 오전 5시20분, 오후 7시30분, 5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6일(주일) 주일예배(오전 7시20분, 9시10분, 11시20분, 오후 2시)이다. ▲ 문의: (714)446-1000

엘피스 패밀리,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제4차 힐링캠프

엘피스 패밀리(대표 박운송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제4차 힐링 캠프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를 주제로 오는 10월 28일(월)부터 이틀 동안 시에라 마드레에 있는 메이더 폴로로사 수양관에서 열린다. 이번 힐링 캠프에는 변명해 교수(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가 강사로 초청된다. 대상은 목회자의 아내이어야 하며 회비는 50달러. ▲ 예약 및 문의: (213)700-9928

큰빛교회 창립25주년 감사예배

큰빛교회(담임 조현영 목사 630 N Anaheim Blvd., Anaheim, CA 92835)는 창립25주년 감사예배를 6일(주일) 오후 3시15분에 갖는다. ▲ 문의: (714)325-7577

홀러턴장로교회 창립감사예배 및 임직식

홀러턴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는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6일(주일) 오전 10시에 갖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음악회는 본교회 연합성가대와 풀러티스트 송솔나무가 출연한다. ▲ 문의: (714)446-9010

남가주새누리교회 건강세미나

시더스-사이나이 암센터 커뮤니티 아웃리치 &인게이지먼트에서는 ‘간 경강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건강세미나를 5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시더스-사이나이 암센터 양주동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 강의하게 된다. ▲ 문의: (310)423-7410, donghee.kim@cshs.org

내 정신건강 돌보는 법 워크숍

LA정신건강국(DMH) 동료지원센터에서 자기 자비력 강화 워크숍을 2일부터 11월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개최한다. 개최장소는 정신건강국 동료지원센터(510 S. Vermont Ave. LA)이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영문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신청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 문의: (213)351-1934, ijoo@dmh.lacounty.gov



또감사선교교회에서 개최한 특별금요 찬양콘서트에서 브라이언 김 찬양선교사가 찬양하고 있다

또감사선교교회, 특별금요 찬양콘서트 열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찬양사역자 브라이언 김 선교사 초청 특별금요 찬양콘서트를 9월27일(금) 오후 7시15분에 열었다. 서동준 총괄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에서 브라이언 김 선교사는 ‘그사랑이’, ‘Rise up to the sky’, ‘그가 일하시네’ 등을 불렀다. 김브라이언 선교사는 “텍사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장난감을 사주셨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가족별로 참가하는 찬양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접했던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즐겨 부르게 되었으며 그것이 찬양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현재 한국에서 젊은 찬양사역자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 김 선교사는 “한국에는 헌신된 젊은 찬양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그

들에겐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멘토가 필요하다”며 “매주 찬양사역의 길에 가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찬양사역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는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한국의 지역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LA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서동준 목사가 브라이언 김 선교사와 그의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다음세대 신앙, 원 포인트 통합 교육+거룩한 습관 형성이 열쇠

다음세대 사역, 세대별 신앙 훈련 필요 요소 짚어

2024 국민미션포럼 목회전략 컨퍼런스의 오픈 세션 중 '다음세대 사역' 영역에서는 다가올 미래의 위기 상황들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음세대 교육의 본질이 조명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꿈이 있는 미래(꿈미) 부소장 백승원 목사는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종교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의 2명 중 1명은 하루 일과 중 신앙과 관련된 활동이 5분이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선 헌신을 넘어 훈련

을 통해 동역자가 된 부모가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종과 주말이 이원화되지 않고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원 포인트 통합교육'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신앙교육의 동역자가 된 부모가 그 핵심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일 한 차례 진행되는 주일학교 부서에 배가 채워지지 못하는 다음세대 영성을 주중에도 복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음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 요송(요절송), 워십댄스 등 꿈미의 드림 워크(Dream week) 교육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신앙교육의 거점 공간으로서 학교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교회가 학교로 찾아가고, 학교를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는 스쿨처치 모델을 제안하며 접목 방향을 전했다. 이어서 등단한 DNA미네스트리(대표 김은호 목사) 총괄디렉터 주성하 목사는 청년 성도들을 위한 사역 바탕을 마련하는 체계를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그는 "특정한 교회 사역을 그대로 접목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각 교회마다 청년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이 형성됐을 때 사역자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영적 동력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 목사는 "영성을 축적시키는 것은 작지만 거룩한 습관으로 시작된다"며 나이, 성별, 지역 등 일상 환경이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도구로 '홀리 해빗(Holy habit) 다니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어 '4권의 교제를 활용해 신뢰 용기 절제 등 21가지 키워드를 목상하며 건강한 신앙 습관을 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5.3%는 "교회가 정신질환을 가진 신자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글즈프렌들리 처치(Singles Friendly Church·싱글 사역)'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 중 하나다. 지난 10년간 한국 혼인율은 4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키워드를 제시한 심경미 우리교백교회 목사는 "아직까지 교회에는 싱글들이 '결혼 대기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싱글에 대한 편견도 강한 편"이라며 "싱글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평생 싱글로 살거나 만혼자가 증가할 것이다. 교회도 이제 이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싱글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48%에 불과했다. 일반 교인들에 비해 20% 포인트 낮은 수치다. 미혼 및 비혼에 따른 싱글 뿐만 아니라 이혼과 사별 등으로 '나홀로'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싱글들의 삶을 배려하는 교회 분위기와 인식 변화가 절실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목회연은 유튜브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기독교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신앙에 도움을 받는 현상 '유반젤리즘(You-vangelism)', 신앙 양극화의 긍정적인 축으로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흐름을 뜻하는 '오스포락시(Orthopraxy)' 등도 내년 한국교회 트렌드로 소개했다.

1 유반젤리즘 (You-vangelism) 유튜브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기독교 콘텐츠를 시청,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현상	2 멘탈 케어 커뮤니티 (Mental Care Community) 교회 내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위한 사역 전략
3 포텐셜 레이더 (Potential Lady)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으로 인해 평신도가 부교역자를 대체하는 현상	4 오스포락시 (Orthopraxy) 신앙 양극화의 긍정적인 축으로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흐름
5 패밀리 크리스천 (Family Christian) 부모 자녀 간 종교 일치 심화 현상, 이에 대한 긍정 및 부정 효과	6 스피리추얼 제너레이션 (Spiritual Gen Z) 기대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내년 평신도 목회·싱글친화 교회·멘탈 케어 사역 등 뜬다

한국교회 2025 트렌드 10대 키워드

인권의 한 중형교회를 출석하는 김미현(가명·55) 권사는 25년째 교회학교 교사를 맡고 있다. 시작은 교회의 부탁이었다. 부교역자가 부족하니 아동부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가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교회에 부교역자가 늘 부족할터라 교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권사는 "과거에는 신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전도사와 부교역자로 교회 교육부서를 담당했기에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면서 "하지만 요즘은 부교역자가 부족해 나같은 평신도가 교육부를 맡는 흐름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대표 지용근)가 '포텐셜 레이더(Potential Laity)'로 정의한 이 같은 현상은 내년 한국교회 핵심 트렌드 가운데 하나다.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으로 인

해 평신도가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목데연은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 한국월드비전(회장 조명환)과 함께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를 공개했다. 내용은 신학자와 언론인, 목회자와 조사통계전문가 등 전문가 10명이 최신 설문조사를 분석해 도출한 한국교회 생존전략 트렌드와 대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목데연은 지난 5-6월 전국 목회자와 평신도, 성인 및 청소년 등 6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멘탈 케어 커뮤니티(Mental Care Community)'로서의 교회 역시 떠오르는 사역 전략의 하나로 제시됐다. 교회 내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위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겪는 성도가 5명 중 1명 이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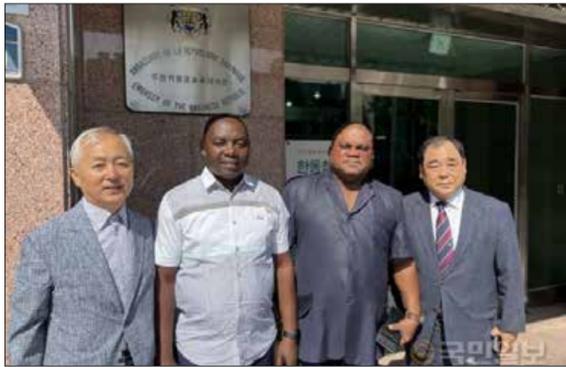
대구 교계·시민 6000명 모여 퀴어행사 반대 국민대회

"창조질서·가정의 가치 이 땅에 바로 세워져야"

"대구와 가정을 파괴하는 퀴어행사 반대한다." 지난 28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도로에서 구호가 울려 퍼졌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킴이학부모연합,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이 주최한 '대구 경북 퀴어반대 국민대회'에서 나온 외침이다. 국민대회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난해에 이어 퀴어행사가 강행됐다. 국민대회는 이 퀴어행사의 '맞불

집회' 형식으로 기독교계 등이 주도해 기획, 개최한 것이다. 약 6000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김영환 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간절한 성운리를 수호하고 건강한 대구 및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열렬한 외치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김지호(23)씨는 "젊은이들이 성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의 결과를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대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최성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의 설교로 대회가 시작됐다. 최 부회장은 '동성애는 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시대에 교인들이 깨어서 올바른 진리를 지켜야만 한다.



한국교회 선교 열매, 가봉 목회자들 한국 땅 밟다

한인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 출신 목회자 등 11명 한국 찾아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40여년 전 아프리카 가봉에 심은 복음의 씨앗은 현지인 목회자로 열매를 맺었다. 이제는 가봉의 복음화를 선도하는 그 열매들이 최근 한국 땅을 찾았다. 아프리카성서화운동본부장 김홍기 선교사와 함께 지난 27일 방한한 루이 실뱅(53) 가봉 복음교회(Evangelical Church) 교단 총회장 이야기다. 실뱅 총회장의 방한 길에는 베누아(53) 부총회장장과 9명의 현지 교회 장로 등도 함께했다. 자신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다. 이를 뒤에는 서울 서소문교회(이경욱 목사) 등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

도 직접 눈으로 봤다. "정말 믿음의 표본과도 같은 교회와 예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인 설교 메시지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해진 순서에 맞춰 경건하고 조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가봉공화국대사관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실뱅 총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김 선교사가 통역을 도왔고, 자리에는 세계성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김 선교사에 따르면 실뱅 총회장은 가봉복음주의신학교 출신 목회자다. 가봉복음주의

신학교는 1985년 2월 포항제일교회의 파송을 받은 후 평생 가봉 선교에 헌신했던 김상옥 선교사가 세운 대표적인 현지 신학교다. 실뱅 총회장은 30대 중반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방황하던 중 신학교를 알게 되며 본격적으로 신앙이 성장했다. 2005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건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김상옥 선교사님이 가봉에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가봉교회는 분열됐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통해 가봉의 젊은 세대를 훈련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김 선교사님의 사역에 감명받아 저도 이렇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김 선교사에 따르면 산유국인 가봉은 아프리카 국가 중 부유한 나라에 속하고, 개신교인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교회 간 연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성도들의 헌신도도 낮은 편이라 교회가 잘 자립하기 어렵다. 김 선교사는 "주님을 위해 교회에 헌신하는 교인을 세우는 일과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실뱅 총회장 등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에 자금을 얻고, 동행한 성도들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헌신을 배우고 돌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10억명 복음 전하려면 교회가 사명으로 하나 돼야"

2024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100개국에서 온 500여명의 선교 지도자들은 30일 진행된 '2024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Global Harvest Summit·GHS)'에서 2033년까지 전 세계 10억명에 복음을 전하자고 다짐했다. 2일까지 열리는 GHS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복음전도 전략과 10억 영혼을 향한 비전을 공유한다. GHS 대회장 황덕영 새중앙

교회 목사는 2024년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그는 "제4차 로잔대회와 GHS 같은 국제적 선교 협력 모임들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한국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선교의 축을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기고 계신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는 서구와 비서구를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황성주 이룸·사랑의공동체 회장은 "모든 성도가 이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복음 전파에 참여해야 할 때"라며 "세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며 영적 기근이 퍼지고 있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구체적 전략으로 전 성도의 선교사화, 예수학교·어린이 기도의 집 운영, 선교로서의 변혁 운동 진행, 대안적·마이크로학교 모델 창출, 기후·과학 영역에서의 복음전도 등을 제시했다.

GHS는 29일 저녁 개막했다. 참가국 국기를 든 기수단이 입장했고 열정적 찬양과 기도로 개막 예배의 문을 열었다. 베르너 나티갈 고무브먼트(Go Movement) 총재는 "나는 독일인이지만 지난 20년간 독일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지금은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세계 기독교인 1%만이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독 그리스도인이 ...

(2면에서 계속)

3. 종말이 가깝기 때문이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했다. 그런데도 누가는 그 두 사람이 자정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가를 불렀다"고 말한다(행 16:25). 고통, 굴욕, 위협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은 막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겪을 때, 애도와 탄식이 터지는 건 이상하지 않다. 다양한 시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승리주의가 이르다는 사실이다. 이 땅은 진부한 행복을 위한 곳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진심으로 찬양했다. 크리스토퍼 에시가 말했듯이, "우리는 현재가 즐겁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다. 미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찬양한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지닌 순수한

가장 큰 목소리로

나는 한때 캐나다 트리오 러시의 로큰롤 앨범을 가지고 있었다. 앨범 뒷면에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볼륨을 최대한 높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새 노래가 요구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자를 향해서 열광적으로 찬양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특정 악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누구라도 기타 불륜은 높일 수 있다. 이교도 세계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보다 더 잘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한껏 고조된 인간의 목소리이다. 찬양과 즐거운 노래로 기뻐하는 우리의 목소리이다. 복음을 증언하다 죽임을 당하고 기둥에 묶어서 시신이 다 태워진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다. "복음은 소고 즐겁고 기쁘고 또 즐거운 소식을 의미한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노래하고 춤추고 기쁨에 뛰어들어 만든다."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소식,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by John Folmar, TGC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4)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제4차 2024 서울-인천 로잔대회와 그 이후(1)

제4차 로잔대회가 인천송도의 컨벤시아에서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0개국에서 5,394명의 현장 참가자, 100여 개국 2,000여 명의 영상 참가자, 2,100여 명의 국제와 한국자원봉사자 그리고 6,888명의 중보기도자가 함께하여 개최되었다. 가장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인 이번 4차 대회에 참가한 필자는 그간 2차, 3차 대회에 참석한 사람으로 수수의 4차 대회에 참가한 한국인으로서 지난 로잔대회의 특징과 과제를 생각해본다.

1차 로잔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었다. 1차 대회는 남미에서 해방신학과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선교 무용론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 교회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통합적 사명이 명확하게 선포되었고, 선교가 단지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정의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로잔 언약이라는 역사적인 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로잔 언약은 이후 복음주의선교의 틀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는 한경직 목사, 김활란 총장 등을 포함하여 약 6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이후 한국 로잔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신학대학의 조종남 총장이 오랫동안 섬겼다. 그는 2023년 소천할 때까지 로잔위원회와 가까이하며 섬기다가, 후배인 서울신학대학

의 최형근 교수가 계승하도록 도와 4차 대회까지 섬길 수 있게 하였다. 1차 대회 한국 참가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들이었기에 로잔운동으로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1차 로잔 대회는 서구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비서구권 교회의 목소리가 부족했지만 남미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 책임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교회의 참여와 관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는 이후 대회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선교 전략에 획기적인 제안은 당시 풀러신학교의 랄프윈터로부터 나왔다. 모든 족속을 제자삼으라는 메시지를 세계의 모든 국가를 넘어 종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약24,000여 종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17,000여 종족이 남아있다는 도전은 선교의 대상을 새롭게 보도록 시야를 넓혀주었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복음전도 중심의 선교적 패턴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었지만, 복음주의교회와 로잔 언약을 바탕으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전 세계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 네트워크의 기초를 마련했다.

2차 로잔대회 (1989년, 필리핀 마닐라)는 비서구권 교회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고 비서구권의 선교운동의 태동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2차 마닐라

대회는 비서구권 교회와 신학의 지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회였다. 오순절교회 출신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면서, 선교의 글로벌화와 교회의 다원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제삼세계선교협의회(TWMA)가 전 시관을 설치하면서 비서구권 선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회 이전 1989년 1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글로벌전략회의(GCOWE)에서는 비서구권에서 2000년대가 되면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발표에도 서구지도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비서구권 선교운동의 태동을 알리는 시도가 조동진 목사를 중심으로 발표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장 사례들이 발표되고 한국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전체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은사주의 운동의 확산이 반영된 대회였다. 은사주의 운동의 급성장으로 인해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대회에 오순절교회 출신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는 카리스마틱 운동이 복음주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전체 모임 중 뜻밖의 예언이 회중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대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서구권 중심에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마닐라 대회는 서구권의 선교 주도권을 비서구권 교회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대회 중에는 로잔 대표인 중국계 미국인 토마스 왕이 이임하면서 서구 백인 중심의 구조가 여전히 강력히 존재함을 보였으나, 대회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AD2000 운동과 함께 서구권 중심의 선교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로잔대회 이후 별개의 AD2000 운동의 시작으로 종말론적인 선교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마닐라 대회는 AD2000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1040 창과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회 이후 전방위적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2000년을 맞이 전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주의 진영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대회 중간에 중국계 미국인 대표인 토마스 왕이 로잔 대표직에 이임하는 순서가 포함되어, 로잔 운동은 여전히 서구 백인 중심의 구조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신학적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였다.

AD2000 운동은 계획했던 2000년 예루살렘대회의 무산과 함께 방향 설정의 혼돈 가운데 있다가 3차 로잔대회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가 에딘버러1910 대회의 100주년을 맞으며 계획되었다. 1910년 에딘버러선교사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며 3대 중요한 모임이 준비되었는데 2010년 5월에는 랄프윈터 박사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선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선교단체대표들이 모인 동경 세계선교전략회의가 준비되었고, 6월에 에딘버러현지에서 열린 100주년기념대회 그리고 10월에 3차 로잔 케이프타운 대회가 개최되었다. 필자는 랄프윈터 박사와 함께 동경대회 준비위원장으로 대회를 준비하였다. 대회 일년 전에 소천한 랄프윈터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비서구권교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된 첫 번째 국제선교 전략회의를 5월에 개최할 수 있었다. 그 대회에는 75개국에

서 2500여 명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여 지속적인 전방위적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협력하기로 결정하며 유럽 복음화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3차 로잔 케이프타운 대회의 긍정적인 면은 포용성과 세상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제시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글로벌 차원의 포용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대회는 전통적인 선교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열린 대회였다. 케이프타운 대회는 4,000여 명의 대표들이 전 세계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권의 복음주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선교의 글로벌 차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대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HIS"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의 가치였다. 주제 강사였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겸손, 정직, 단순함을 복음적 삶의 핵심 덕목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는 대회의 전체 분위기를 지배했다. 특히 라이트의 성경강해는 대회의 주요 흐름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덕목들은 이후에도 복음주의 선교에서 계속 회자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두드러졌다. 3차 대회는 이전과 달리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대회를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600개 이상의 위성 중계 장소를 마련해, 전 세계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여하면서,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소통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선교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교회와 사회적 문제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복음이 단지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인신매매, 가난, 질병, 인종 차별 등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복음적 신앙이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첨단 기술의 시도는 한계도 함께 보여주었다. 케이프타운 대회는 처음으로 대규모 디지털 중계를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연결 불안정으로 인해 원활하게 대회를 시청할 수 없었으며, 디지털 참여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후 대회에서 더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대규모 대회에서 아쉬운 문제인 구체적인 행동 전략 부족이 지적되었다. 3차 대회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며 여러 세션과 토론회가 이루어졌지만, 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행동 전략이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회가 제시한 비전이 현실에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

3차 로잔대회 이후의 영향과 후속 작업들로서 HIS의 글로벌 확산을 들 수 있다. 케이프타운 대회의 주요 메시지였던 "HIS"는 이후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복음적 삶의 기본자세로 자리를 잡았다. 겸손, 정직, 단순함은 개인의 영적 성숙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지도자들의 도덕적 책임과 영적 정직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3차 대회는 디지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3차 대회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선교라는 새로운 영역의 발전을 촉진했다.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가 대회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소셜 미디어, 온라인 스트리밍, 위성 방송 등의 기술이 선교와 교육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는 현대 선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C.S 루이스의 생애 산책(1)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C.S. 루이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

20세기를 살다 간 C.S. 루이스가 21세기에도 주목받는다. C.S. 루이스가 장기간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우선 그가 많은 독자를 확보한 작가다. 게다가 C.S. 루이스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다.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C.S. 루이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학자와 여러 종단 지도자들에게도 큰 인정을 받았다.

C.S. 루이스 자신은 당시 신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공동체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지도자들이 루이스의 저작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큰 공감을 표현했다. 다수의 신학자가 C.S. 루이스를 복음주의 신학계에 소개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자 중의 하나였던 제임스 I. 패커가 앞장서서 C.S. 루이스를 복음주의 교계로 소개했다. 패커는 루이스가 가진 영향력을 인정했고 그의 신선하고 심오한 영향력에 큰 도전을 받았다. 존 스타트드 흡사한 방식으로 도전을 받아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루이스를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독교 변증서인 <기독교의 기본진리>에서 독자들에게 권하는 좋은 기독교 서적 목록에서 <순전한 기독교>를 첫 번째 책으로 언급했다.

복음주의 신학 신학자 MT 라이트 박사는 루이스의 영향력과 변증 방식과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미국 뉴욕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 목사도 C.S. 루이스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았고 루이스의 변증법을 존경했다. 현재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 알리스터 맥그래스 박사도 루이스의 활동과 영향력을 소중히 여기고 루이스의 활동을 이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C.S. 루이스가 복음주의 진영에서만 환영받은 것이 아니다. 천주교는 물론이고, 동방 정교회 그리고 심지어 물론교도 C.S. 루이스를 지지한다. 천주교에서 루이스를 대하는 것은 특별하다.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로 회심한 유명인이 많다. 도미노피자의 설립자 톰 모너핸도 유명한 천주교 신자인데 그가 C.S. 루이스를 통해 천주교에 입교해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동방정교회 평신도 신학자 앤드류 위커는 많은 동방 정교회 신자들이 루이스를 열렬히 따른다고 소개했다. 정교회 작가의 책만 있는 정교회 서점에 유일한 비 정교회 저자가 쓴

책이 C.S. 루이스 책이다. 동방 정교회 영국 감독인 칼리스토스 웨어는 루이스를 "의명의 정교회 신자"라고 주장했다.

C.S. 루이스가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많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도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데 루이스의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의 사연이 많고 지금도 변화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루이스의 책들은 다양한 독자를 얻었고 다양한 변화를 창출했다.

이런 변화의 사연을 모은 특별한 책이 출판되었다. C.S. 루이스를 연구했던 메리 앤 페미스터 (Mary Anne Phemister)와 앤드류 라조 (Andrew Lazo)가 루이스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순전한 크리스천 (Mere Christians)>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루이스를 통해 변화된 55명의 그리스도인이 루이스에게 받은 영향을 진솔하게 기술한다.

C.S. 루이스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고백한 55명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찰스 콜슨, 프랜시스 콜린스, 랜디 알콘 그리고 필립 안시 등등이 있다. 이 중에는 루이스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사람도 있고,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

람이 루이스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도 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유능한 변호사였던 찰스 콜슨은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를 읽고 회심했다. 찰스 콜슨은 자신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친구의 강력한 추천으로 <순전한 기독교>를 읽었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 찰스 콜슨은 신앙 간증에서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소개함으로써 이 책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 후 찰스 콜슨은 수백 권의 <순전한 기독교>를 사서 이웃들에게 선물하며 읽기를 권했다고 한다.

미국 국립보건의원장을 지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회심도 유명하다. 과학도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는 자신의 무신론의 논리적 근거를 세우기 위해 고통스럽다 동네 감리교 목사를 찾아가다. 요한복음을 소개하며 설득하던 감리교 목사는 <순전한 기독교>를 주며 읽기를 권했고, 이 책을 읽으며 콜린스는 자신의 물질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 훗날 콜린스 박사는 자신의 기독교 변증서 <신의 언어 (Language of God)>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신앙을 소개하며 <순전한 기독교>와 사연을 전했다.

<천국>과 <행복> 등 베스트셀러의 작가 랜디 알콘 박사나

저명한 크리스천 작가 필립 안시도 C.S. 루이스를 통해 바뀐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랜디 알콘 박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루이스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필립 안시나 랜디 알콘 박사가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돕는 작가가 된 것이 C.S. 루이스의 영향력 덕분이라고 말한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본질에 집중했다. 그래서 범 기독교계의 호응을 받았다. 나아가 그는 인문학적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을 알았다. C.S. 루이스는 모든 독자가 자신을 위한 책으로 느끼게 했다. 과학도 프랜시스 콜린스의 고민도 해결하고 바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랜디 알콘의 갈등도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C.S.루이스처럼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들이 많았다. C.S. 루이스가 BBC에서 방송 강연을 할 때 영향력 있는 방송 설교자도 있었다. 그런데 유독 C.S. 루이스의 책과 강연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었다. 기독교 후기 시대에 영적 갈등과 갈등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도해야 할 현대 교회는 C.S. 루이스를 더 섬세하게 살피고 따라야 할 것이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여호와와의 사자(삿 2:1-10) 찬 364장

보김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여호와 사자는 특이한 천사 곧 구약에 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거는? 첫째,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와의 군대장관 곧 성육신하신 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당사자는 여호와

이신데 그 자신이 세웠다고 주장하십니다. 셋째, 그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교회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신약의 그리스도란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모형과 상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한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화 하나님의 구원방법(삿 2:11-23) 찬 253장

하나님은 비참함 속에 떨어진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첫째, 인격적 교제의 회복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을 어길 때 진노하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백성의 권위로 세운 사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사 자신에게 힘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능력 받아 일했습니다. 셋째, 자기 백성의 순종을 주목하십니다. 사사의 승리

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에 있었고 백성들의 승리 역시 사사의 말에 순종함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길 때 그들의 영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을 때부터 순종학교에 입학한 우리는 눈가림으로 주를 따르지 말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되어 주를 따라갈 때 구원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순종을 힘써시다.

수 시험하시는 하나님(삿 3:1-11) 찬 395장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모든 시험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의 목표는 신앙 연단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으로 인내의 인격을 가지게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가지처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시험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제 일의 방해가 노예근성 곧 육적 소욕이기

때문에 바로 일연의 시련을 통해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 종전 의식이 사라지게 하고 배은망덕의 죄, 더 나아가 도덕적 악이 만연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험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간구로 웃니엘이 사사로 나아가 승리해 40년의 태평세월을 얻게 했습니다. 시련의 연단을 통해 쓰임을 받으시라.

목 실패에서의 회복(삿 3:12-31) 찬 187장

타락, 정계, 부르짖음, 구원의 네 사이클을 이룬 사사 시대는 실패의 슬럼프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호와와의 목전에서 시작된 죄는 또 다시 그 앞에서만이 해결됩니다. 여호와란 이름이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기에 또 다시 범죄한 그들일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긍휼을 받습니다. 둘째, 부르짖는 기도도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셋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18년간 고생하던 그들이 구원받아 80년간 태평세월을 누렸습니다. 사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후의 구원은 한계가 있었으나 완전한 사사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 단번에 완성됩니다.

금 사랑의 하나님(삿 4:1-10) 찬 373장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겼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첫째, 그는 선악의 표준이며 절대 권위이십니다. 모든 죄악의 선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중요합니다. 둘째,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

에 때리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왕에게 넘기심은 벌이라기보다 그들을 돌이키려는 사랑의 손입니다. 당분간 허용된 아픔이 그들을 새롭게 합니다. 셋째, 그는 기도의 대상으로 자기 백성의 고난을 친히 해결하십니다. 원수의 압제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토 영전 승리방법(삿 4:11-24) 찬 391장

신자의 생애는 영전의 삶이기에 승리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앞서 싸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주력부대를 격퇴하고 패잔병을 모두 멸절시킨 것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에 반드시 이깁니다. 둘째, 신앙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바락이 이겼으나 불 신앙 때문에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드보라에게 믿음을 더 두었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셋째, 모든 준비를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야엘이란 한 여인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당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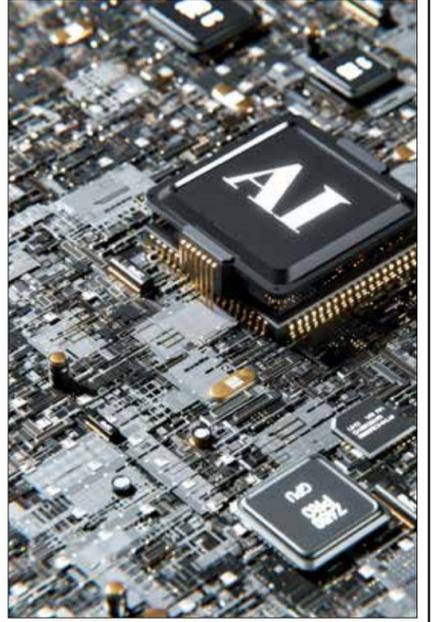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도구 활용 2회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

Generative AI(생성형 AI) 도구는 머신러닝 모델, 특히 딥 러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소프트웨어 혹은 플랫폼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입력을 기초로 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코드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도구들은 목회와 선교 사역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이며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생성 도구 Text to Text (TTT)

텍스트 생성(TTT) AI 도구들은 입력 텍스트 쿼리(프롬프트)에 대한 텍스트 응답을 생성해 줍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문구를 생성하거나 고쳐 주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주며, 요청한 자료들을 검색해 요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편지, 인사말, 양식, 행사 플랜 등을 작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OpenAI의 ChatGPT, Microsoft의 Copilot, Google의 Gemini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TTT AI를 사용하면 설교 준비 및 설교 본문에 대한 아이디어, 주제에 대한 쉬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신앙상담 및 영적 돌봄을 위해서 상담자의 환경에 맞는 신앙적 질문을 통해서 적절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 자료 제작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한 이해와 토론, 퀴즈 등을 생성해 줍니다. 교회 혹은 신앙 모임에서 적합한 기도문을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TTT AI를 이용하여 특정 나라별 혹은 선교지별 문화와 특징, 종교적 배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선교 및 전도 대상자의 관심사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설교 및 전도 메시지 제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 Text to Image (TTI)

이미지 생성(Text to Image, TTI) AI 도구들은 텍스트 설명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2D 이미지나 3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실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거나 가상의 이미지, 혹은 예술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Jasper Art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생성 AI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및 Jasper Art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미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지식 없이도 손쉽게 자신만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예배 설교 혹은 교회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제작은 시각적 효과가 교육에서 중요한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에 효과적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지, 포스터, 배너, 팸플릿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선교 보고서 혹은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회와 선교 사역에서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사역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AI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신로평지

우간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눅 1:37) 두 번째 term을 시작하고 단기 팀들이 다녀가면서 13주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방학이 시작되어서도 이런저런 일로 2주 넘는 시간이 어찌나 바빠 지나가는지 9월 16일, 월요일이면 마지막 세 번째 Term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부쩍부쩍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쏠살처럼 흘러갑니다. 그중에서도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간다 소식
우간다는 동성에 반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동성에 우호적인 정책에 반대해서 원조가 끊기게 되어서인지 조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이 데모하는 뉴스가 자주 들립니다. 무장 세력의 테러 위협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라는 대사관의 경보 메시지를 자주 받습니다. 치안을 위해서, 사망률이 높은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길 그리고 테러를 계획하지도 못하도록 간섭해주시길 구하는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학교 소식
1) 뉴 컴퓨터 보충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새 컴퓨터 10대를 단기 선교팀이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하게 해주셔서 학생들이 정말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0대는 현지에서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교회와 개인과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교재발행 : 지난 학기에 시작된 책 발간에 이어 방학숙제 교재(workbook)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기마다 교재와 방학 과제물 발간이 선생님들의 협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3) 성경 필사 : 이번 학기에는 37분의 스텝들이 사도행전 필사를 마쳤습니다. 선생님 한분은 베드로 전서 5장 전체를 암송하여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셨

습니다. 학기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4) 방학식 행사: 모든 직원이 1km 달리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천천히(느리게, 지나친 여유?) 하는 모습이 보기 부담스러워 계획한 행사였지만 모두가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우산, 비누, 치약 등등 생필품을 나누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소소한 생필품이나 식료품이 큰 선물이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5) 보충수업 : 방학중 P.6&7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곳 학생들의 가정 환경은 학습을 하기에 그다지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

하는 것이 최고로 여겨지고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6) 장학금 전달식 : 장학금 수혜자를 직원 자녀(4명-사정상 학교를 떠나기도해서) 뿐 아니라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전체 11명의 졸업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멋진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나길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7) 새 학기 준비: 2주간의 휴가를 마친 스텝들이 학교로 복귀하여, 첫 이틀간 4 복음서를 함께 통독하며 말씀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독 전문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1. 9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도 학교를 잘 섬겨 나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시길
2.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19명의 P.7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일레인, 마틸다, 조이, 임마누엘, 조수아, 엘라이자, 사이먼, 에드ريان, 니콜라스, 살롬, 모세, 폴, 바니타, 사만타, 조나단, 필립, 다니엘라, 이스라엘, 플라)
3. 불가피하게 학교를 떠난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여주시길
4. 두 아들의 가정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안정근, 정미향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이란
▲ 종족명 파르시-다리
▲ 인구 약 350,000명
▲ 종교 기타 100%, 복음화율 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파르시-다리족의 기원은 페르시아왕 다리우스, 고레스, 아하수에로까지 이르며, 자부심이 강하다. 동방박사도 파르시-다리족이라고 믿는다. 조로아스터교도로서 아람 정복 당시 이슬람교를 거부했다. 피의 인약식 후에야 자기 종족으로 여기며, 타종족과 결혼한 여자는 외부인으로 생각한다.

- ▲ 기도제목
1. 파르시-다리로 성경이 속히 번역되도록
2. 성경과 메시야에 호감을 가진 파르시-다리족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도록
3.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해 불을 숭배하는데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브루클린제일교회', '뉴욕세인트로교회', etc., listing pastors and service times.

인/터/뷰

제1회 시니어 사역교육훈련 세미나를 준비하는 이성희, 황성만 목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이성희 목사 Prestige University Lifelong Institute, 이하 PULI)는 미주성서화 운동본부와 미주복음방송과 함께 오는 10월 15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프레스



이성희 목사(사진 왼쪽)와 황성만 목사

이성희 원장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시니어들은 신앙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며 나이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건강하며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리고 시니어의 문턱을 향해 가는 예비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세대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을 때다.”라고 피력한다. 이번 세미나는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시니어 파트너스 이사장)가 ‘웰에이징: 인생은 윈더풀, 떠남은 뷰티풀’, △김기철 교수(감신대학교 교수, 한국영성노년학연구소 소장)가 ‘노화, 하나님의 선물’, △살롬 김 박사(비전멘토링 인터네셔널 대표)가 ‘시대, 세대, 세계를 완성케 해주는 시니어 비전 멘토링’, △김재홍 목사(웰에이징 미션 대표)가 ‘시니어 사역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과 사례소개’를 하게 된다. 한편 PULI는 이번 세미나

“시니어들 그리고 시니어의 문턱을 향해가는 예비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이성희 목사와 매니저 황성만 목사를 만나보았다. 이성희 원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교회역시 고령 사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교회와 규모가 제법 있는 중

형교회를 제외하고 목회사역이 어려워졌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작은교회의 교인들이 큰교회로 옮겨갔으며 이로 인해 소형교회의 사역이 매우 힘들어졌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의 이탈로 인해 교회는 고령층 위주로 모이게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하며 “중대형 교회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진단했다. 그가 진단한 것은 교회에서 시니어들의 소외현상을 꼽으며 “이미 70대로 접어든 교인들은 사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이가 들었지 건강상태의 어려움 없이 봉사할 수 있는데도 돌봄의 대상이 되어서 사역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는 시니어의 돌봄과 시니어의 재사역자화를 위해 한인 이민교회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강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시니어 사역에 대한 방향성과 시니어 목회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게 된다.

다. 교회에서 이탈한 젊은 세대들의 대부분이 미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니어사역을 하는 미국교회가 의외로 적은편이다. 그것은 젊은 세대들이 언젠가 다시 한인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들이 한인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시니어들

를 시작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나갈 것이다. ▲ 문의 및 예약 접수: 황성만 목사 (626)826-4181, lifelonghwang@pts.edu (박준호 기자)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가을로 물드는 정원’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들은 꽃들, 그 모습들 속에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새로 오는 봄에 다시 싹을 내어 예쁘게 꽃을 피워 아름답게 저의 정원을 또 수놓아줄 여물어가는 씨들이 있다는 것이 제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봄과 여름 예쁘게 피어서 저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주었던 그 이쁜 꽃들이 저렇게 시들시들 불상 사납게 시들어가는 모습이 없다면 다가오는 봄에 저의 정원



을 수놓아줄 예쁜 갖가지 꽃들도 없을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정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에 시들어가는 꽃들조차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의 인생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가와 인생의 봄, 여름, 가을도 감사한 마음으로 맞

아야 한다는 생각을 이 아침에 다시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저

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 오셨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나와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시 10:15-19).”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서부시간 기준)
-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